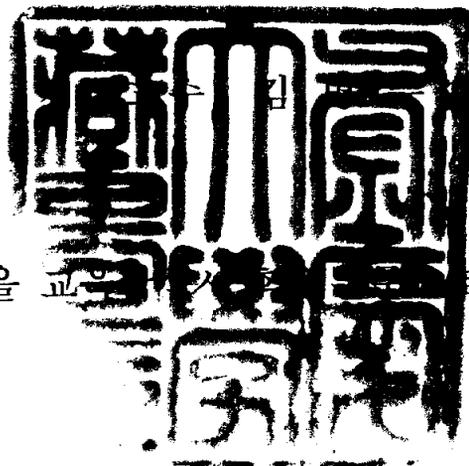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실업계고등학교 실내디자인 교과내용
개발에 관한 연구

- 조선시대 전통가옥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함

200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디자인교육전공

양 윤 영

양윤영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8월 일

주 심 유 상 옥

인

위 원 김 철 수

인

위 원 김 명 수

인

차 례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제한점	3

II. 본 론

1. 한국의 전통 실내디자인 교육

1-1. 교육의 목적	4
1-2. 교육의 필요성	5

2. 실업계고등학교 실내디자인과의 전통 교육에 관한 현황 및 분석

2-1. 교육과정 현황 및 분석	6
2-2. 교과서 현황 및 분석	8
2-3. 실내디자인과의 실태 조사 분석	
2-3-1. 설문 조사 및 분석	13
2-3-2. 문제점 및 개발 방향	32

3. 조선시대의 전통가옥을 통한 실내디자인 교육을 위한 교과내용안 제시

3-1. 교과내용 개발 방향	34
3-2. 교과내용안의 학습주제 설정	38
3-3. 조선시대의 전통가옥을 통한 실내디자인 교육을 위한 교과내용안	
3-3-1. 조선시대 전통가옥의 특성	38
3-3-2. 전통가옥의 변천사(역사)에 관한 교육	
3-3-2-1. 삼국시대	40

3-3-2-2. 통일신라시대	42
3-3-2-3. 고려시대	42
3-3-2-4. 조선시대	44
3-3-3. 전통가옥의 구조에 관한 이론	
3-3-3-1. 한국의 주거	44
3-3-3-2. 지역별 주거	50
3-3-3-3. 구조별 주거	53
3-3-3-4. 기능적 분류	56
3-3-4. 전통가옥의 구조에 관한 실습	62
3-3-5. 전통가옥의 재료(실내마감재료)에 관한 이론	
3-3-5-1. 바닥	65
3-3-5-2. 벽	68
3-3-5-3. 창호	70
3-3-5-4. 천장	71
3-3-6. 전통가옥의 재료(실내마감재료)에 관한 실습	76
3-3-7. 전통가옥의 가구에 관한 이론	78
3-3-7-1. 안방가구	79
3-3-7-2. 사랑방가구	85
3-3-7-3. 부엌가구	90
3-3-8. 전통가옥의 가구에 관한 실습	92
3-3-9. 전통가옥의 색채에 관한 이론	94
3-3-10. 전통가옥의 색채에 관한 실습	95
3-4. 교과서 적용안	96

III. 결론 및 향후 과제

99

참고 문헌

부 록

표 차 례

[표 1] 실내디자인과의 전공 교육과정 현황	7
[표 2] 실내 디자인 교과서 분석	9
[표 3] 실내디자인의 변천단원 구성 및 비율	10
[표 4] 실내디자인의 변천단원 내용	12
[표 5] 실내디자인 변천단원 교과내용에 대한 설문문항(학생용)	14
[표 6] 실내디자인 변천단원 교과내용에 대한 설문문항(교사용)	14
[표 7] 실업계고등학교 실내디자인계열 과(科) 설치 현황	15
[표 8] 설문지 응답자 수 및 회수율	15
[표 9] 교사의 일반적 사항	17
[표 10] 교과내용안 개발 방향	35
[표 11] 개선 교재의 실제안	36
[표 12] 개선 교재 실제안(한 단원 예시)	37
[표 13] 평면 유형에 따른 가옥	45
[표 14] 주택의 구조	49
[표 15] 주거건축의 용도와 형태 분류	50
[표 16] 민가의 배치 방법	50
[표 17] 전통주거의 실내 마감표	75
[표 18] 부분별 재료와 색채의 선택	76
[표 19] 가구의 종류	79
[표 20] 장의 종류	80
[표 21] 농의 종류	81
[표 22] 함의 종류	85
[표 23] 탁자 구분	87
[표 24] 서안의 종류	87
[표 25] 평상의 종류	89
[표 26] 소반의 종류	91
[표 27] 교육 방향 제시	100

그림 차례

[그림 1] 전통 교육의 필요성(교사)	18
[그림 1-1] 전통 교육의 필요성(학생)	18
[그림 2] 전통 교육의 필요성 이유(교사)	19
[그림 2-1] 전통 교육의 필요성 이유(학생)	19
[그림 2-3] 전통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학생)	20
[그림 3] 전통 교육의 관심도(교사)	20
[그림 3-1] 전통 교육의 관심도(학생)	21
[그림 4] 전통 교육 관심 이유(교사)	21
[그림 4-1] 전통 교육 관심 이유(학생)	21
[그림 5] 한국 전통가옥의 교육 목적(교사)	22
[그림 5-1] 한국 전통가옥의 교육 목적(학생)	22
[그림 6] 실내디자인의 변천사 단원의 범위	23
[그림 7] 실내디자인의 변천사 단원의 이해도(교사)	23
[그림 7-1] 실내디자인의 변천사 단원의 이해도(학생)	24
[그림 7-2] 내용의 부적절한 이유(교사)	24
[그림 7-3] 내용의 부적절한 이유(학생)	25
[그림 8] 실내디자인의 변천 단원의 수업 형태	25
[그림 9] 지도시 학생의 반응	26
[그림 9-1] 학생들의 관심도	26
[그림 10] 지도시 애로점	26
[그림 11] 이해시 도움	27
[그림 12] 학습에 도움이 되는 수업 형태	27
[그림 13] 교과서 시정 부분(교사)	28
[그림 13-1] 교과서 시정 부분(학생)	28
[그림 14] 교과서 독립 여부(교사)	29
[그림 14-1] 교과서 독립 여부(학생)	29
[그림 15] 교과 내용안 개발 여부(교사)	30
[그림 15-1] 교과 내용안 개발 여부(학생)	30
[그림 16] 단원 구성(교사)	31
[그림 16-1] 단원 구성(학생)	31
[그림 17] 이론과 실기 병행 여부(교사)	32
[그림 17-1] 이론과 실기 병행 여부(학생)	32

[그림 18] 시대의 흐름	40
[그림 19] 고려시대 가옥	43
[그림 20] 홑집	46
[그림 21] 겹집	46
[그림 22] 상류주택	47
[그림 23] 중류주택	47
[그림 24] 초가집	48
[그림 25] 평면도	48
[그림 26] 안채 평면도	48
[그림 27] 안채 정면도	48
[그림 28] 아래채 평면도	49
[그림 29] 아래채 정면도	49
[그림 30] 지역별 주거가옥 형태	50
[그림 31] 주택의 평면구성과 기능	53
[그림 32] 안채	53
[그림 33] 안채 배치도	53
[그림 34] 사랑채	54
[그림 35] 사랑채 배치도	54
[그림 36] 사당채	55
[그림 37] 사당채 배치도	55
[그림 38] 행랑채	55
[그림 39] 행랑채 배치도	55
[그림 40] 별당채	56
[그림 41] 별당채 배치도	56
[그림 42] 공간채	56
[그림 43] 공간채 배치도	56
[그림 44] 내청	57
[그림 45] 방의 구조	57
[그림 46] 안방	59
[그림 47] 사랑방	60
[그림 47-1] 사랑방	60
[그림 48] 부엌	61
[그림 49] 찬방	62
[그림 50] 안방 평면도	64
[그림 50-1] 안방 북측 입면도	64
[그림 50-2] 안방 동측 입면도	64

[그림 50-3] 안방 남측 입면도	64
[그림 50-4] 안방 서측 입면도	64
[그림 51] 사랑방 평면도	64
[그림 51-1] 사랑방 북측 입면도	64
[그림 51-2] 사랑방 서측 입면도	64
[그림 51-3] 사랑방 동측 입면도	64
[그림 51-4] 사랑방 남측 입면도	64
[그림 52] 귀틀	67
[그림 53] 관장문, 끝판문	70
[그림 54] 연등천장	72
[그림 55] 재료계획 완성예시 작품	78
[그림 56] 이층장	80
[그림 57] 머릿장	80
[그림 58] 이층농	81
[그림 59] 반단이	82
[그림 60] 빗집, 반경	83
[그림 61] 가께수리	84
[그림 62] 함	84
[그림 63] 깨	84
[그림 64] 책장, 삼층책장	86
[그림 65] 사방탁자	86
[그림 66] 문갑	87
[그림 67] 서안	88
[그림 68] 연상	88
[그림 69] 고비	89
[그림 70] 뒤주	90
[그림 71] 찬장	91
[그림 72] 소반	92
[그림 73] 가구배치 완성 예시작품(안방)	93
[그림 73-1] 가구배치 완성 예시작품(사랑방)	93
[그림 74] 전통색채	94
[그림 75] 색채계획 완성 예시작품(안방, 사랑방)	96
[그림 76] 교과서 적용안 예시	97
[그림 76-1] 교과서 적용안 예시	98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Contents of education Interior Design at Vocational High School

- Centered traditional House in Choson Dynasty -

Yun Young, Ya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se days design development direction of advanced nations, is informing native culture and art activity in the other country, and use influence to therelated country, and develop to the dimension of strategic and policy not in private level. However, our design is short history so far and cut with traditional culture taking in modernization. And a result of indiscreet imitation and following of the design of foreign countries and lack of effort in every part, individual design formation and Globalization that base to our culture heritage are insufficient in real situation.

In order to globalize the design of a country, first of all, independence of culture by peculiarity of the country is expressed, and universal excellencies must appear as adapting in universal value with this.

Therefore, we can obtain the maximum results of our design

education that is more unique and is coincided in our emotion, when our design education grafts naturally with our culture heritage.

More studies of traditional house are necessary in interior design, but the studying contents are related with it and professor methods are very insufficient.

We can obtain the maximum results of our design education through studies of our traditional interior design is more unique and coincided in our emo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in interior design to study about the traditional interior design.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necessity of the education about Korean traditional interior design in technical high school has interior design course. Second,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problem of tradition education in the interior design text book, and groped for the education about interior design of tradition house in Chosen Dynasty. Third, it is an important question how to induce student's interest in interior design of tradition house in Choson Dynasty and to develop teaching materials suitable for the student.

I present some effective teaching programs in parallel with practice and theory of the interior design centered traditional house in Choson Dynasty to solve the problem.

More studies are needed for interior designs of traditional house in Choson Dynasty refer to the present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subject to rouse interest for students.

The general trend of house design centered to residing western style must change to Korean style. Also I hope the direction of design education will be change to help to design creative and peculiar to Korean by applying traditional house design.

I. 서론

1. 연구목적

오늘날 일상 생활용품에서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외래 문물에 대한 분별없는 답습과 모방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훌륭한 전통이 낡은 것, 진부한 것으로 오인되어 소외되고 있다. 잊어버린 전통을 오늘날의 감각으로 전환시켜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디자이너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및 현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내 디자인 교육이 서양적으로 치중하여 있는 교육의 문제점을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전통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기존 실내 디자인 교과서에 적은 분량의 전통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만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 디자인 교육에서의 부족한 전통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우리의 전통과 우리 민족의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전통가옥을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통합교육 중심으로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체계적이고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는 조선시대 전통가옥을 교과 내용안으로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에 본 논문은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서양의 디자인적인 사고와 역사를 위주로 하는 실내디자인 수업과 교과서에 따른 교육 방법에 대한 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자인 학습에 있어서 독창성과 창의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내용, 방법, 제한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론의 제1장에서는 전통가옥을 통한 실내디자인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실내디자인의 전통 교육에 관해 현 실내디자인과의 교육과정표와 현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실업계고등학교 실내디자인과의 교사와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통해 한국의 전통가옥을 통한 실내디자인 교육의 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조선시대의 전통가옥을 통한 실내디자인 교과안을 한국 전통가옥의 변천사, 구조, 재료, 가구, 색채의 단원으로 구성하여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통합교육 중심으로 교과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로서 실내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국 전통가옥을 통한 실내디자인 교육의 방향을 논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실내디자인과의 교육내용의 실태 파악을 위해서 실내디자인과의 교사와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선시대의 전통가옥 실내디자인의 개념, 특성, 교육내용 등의 이론

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 관련 서적 및 기존의 연구자료 등의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각 학교의 내부자료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과정을 조사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고 교과 내용안을 제시함에 있어 실내디자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택이므로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 중에서도 가장 많이 현존하고 접하기 쉬운 조선시대의 전통가옥을 중심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조선시대의 전통가옥 실내디자인 교과 내용에서도 실내디자인의 모든 분야의 내용을 다루기에는 연구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지고 자칫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내실 있는 교과 내용 연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실내디자인의 기본적인 개념과 변천사, 구조, 재료, 색채의 내용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를 하였음을 밝힌다.

Ⅱ. 본 론

1. 한국의 전통 실내디자인 교육

1-1 교육의 목적

전통가옥에 대한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나 교훈을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를 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는 데 있다. 조선시대의 전통가옥 역시 한국의 전통 실내디자인 교육의 목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반영하고 한국의 전통가옥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현명한 방향 제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주택과 나아가 현대 주택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분석력을 길러 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전통가옥에 관한 이론교육을 강화하여 학업을 통해 축적한 지식기반을 실기과목에 접목시켜 보도록 하며 이러한 경험을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 시장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디자이너 양성을 위해 교육계가 담당할 몫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1-2. 교육의 필요성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디자인 산업분야에 그 나라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접목시킴으로써 특유의 민족적 이미지를 창출시키고 있는 현상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디자인 흐름은 외국 선진국에서 유행하였던 사조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독자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체성을 지닌 디자인으로 보기 어렵다. 기존의 실내 디자인 교육은 디자인 양식사를 근간으로 하여 보다 장식양식에 치우쳐 온 특성이 있다. 이는 학문 역사가 짧은 만큼 그 정체성을 찾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 및 학술적 정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실내 디자인이 실내건축과 실내장식 모두를 포괄하는 보다 포괄적인 전문 분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시대에, 실내디자인의 교육 내용도 전통가옥을 통한 실내디자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재편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통가옥을 통한 실내디자인 교육은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새기고 이해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교육수단이 되고, 우리 민족성을 살리는 길이며 세계로 뻗어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는 생활미를 바탕으로 여기에 현대의 생활문화를 접목시키고 나아가 독자적인 민족문화를 계승한다는 자부심과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가옥을 통한 실내디자인교육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실업계고등학교 실내디자인과의 전통 교육에 관한 현황 및 분석

2-1. 실내디자인과의 교육과정 현황 및 분석

각 학교의 교육과정표를 살펴보면, [표1] 과 같다. 전통에 관련된 교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실내디자인 교과목은 전 학교에서 이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학교에서는 실내디자인 교과서에 수록된 ‘실내디자인 변천’ 단위만이 전통에 관련된 교육이 대부분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전통가옥 실내디자인에 관한 교육은 실내디자인 변천 단위에서 ‘우리나라의 실내디자인’ 이란 단위만으로 전통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실내디자인과의 전공 교육과정 현황

교육과정		학 교						
영역	교과목	A	B	C	D	E	F	G
계열필수(공)	공업입문	2	2		2	4		
계열필수(공)	기초제도	2	4	4	4	6	2	10
계열필수(공)	정보기술기초	2	4	6	6	6		
계열필수(가)	컴퓨터 일반						10	
전문선택(가)	가구디자인	6	10	16	4		8	12
전문선택(가)	디스플레이		4					
전문선택(가)	실내디자인	32	12	12	18	18	28	18
전문선택(가)	주거				6	10		4
전문선택(공)	건축구조	1	8		4	6		
전문선택(공)	건축시공	7	7					
전문선택(공)	건축계획일반	26	14		20	14	20	
전문선택(공)	공예			22			8	
전문선택(공)	디자인일반	4		2		2	4	4
전문선택(공)	디자인재료/건축재료	4			4			
전문선택(공)	색채관리	4	4			4	6	6
전문선택(공)	전기일반		6					
전문선택(공)	전문제도(디자인 /건축제도)	16	18		20			
전문선택(공)	전자계산일반	2				4		
전문선택(공)	전자전산응용		10					
전문선택(공)	조형	10		12	6	6	6	12
전문선택(상)	광고사진	6						
전문선택(상)	컴퓨터그래픽		6		8		16	4
학교지정	소묘/묘사			8				12
학교지정	스페인어권 문화							2
학교지정	현장실습		5					
계(이수단위)		124	114	82	102	80	108	84

* 영역의 (공)은 공업계열, (상)은 상업계열, (가)는 가사·실업계열 교과를 나타내며, 칸 안의 수는 이수단위를 나타낸다.

2-2. 실내디자인과의 교과서 분석

‘한국의 전통가옥’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실내디자인’ 교과목에 속해 있다. 실내디자인 교과는 실업계 고등학교 실내디자인과에 있어서 전문선택 교과이지만 실내디자인과가 개설된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수하는 교과이다.

이 교과는 실내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실제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기 내용으로 실내 디자인의 이해, 실내디자인의 변천, 실내 공간의 평면표현, 실내공간의 입체 표현, 실내 공간의 요소와 원리, 실내 공간의 구성요소와 재료, 색채와 재료의 계획, 공간별 실내 디자인, 컴퓨터를 이용한 실내 공간의 표현 등 총 9개 단원으로 구성하였다.¹⁾

실내디자인 교과서의 단원구성 및 단원의 비중도를 [표 2]²⁾로 나타내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실내디자인, 2003, p.3.

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실내디자인, 2003. 전체 내용을 도표화 함.

[표 2] 실내 디자인 교과서 분석

실내 디자인 교과서			
대단원	중단원	%	
1	실내디자인의 이해	실내 디자인의 개념	5.9
		실내 디자인의 필요성	
		변화하는 사회와 실내 디자인	
2	실내디자인의 변천	우리나라의 실내 디자인	5.9
		서양의 실내 디자인	10.3
3	실내 공간의 평면 표현	평면도 그리기	7.3
		실내 입면도 그리기	
		천장도 그리기	
4	실내 공간의 입체 표현	투상도 그리기	8.1
		투시도 그리기	
5	실내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실내 디자인의 요소	8.1
		실내 디자인의 원리	
6	실내 공간의 구성요소와 재료	실내 공간의 구성 요소	12.5
		실내 공간의 마감재료	
7	색채와 재료계획	색채계획	6.6
		재료계획	
8	공간별 실내디자인	실내 디자인의 과정	20.6
		단독 주택의 디자인	
		과일 주스 전문점의 디자인	
		여성의류 매장의 디자인	
		사무실(office)의 디자인	
9	컴퓨터를 이용한 2차원 표현	환경설정하기	15.1
		객체작성하기	
		객체수정하기	
		도면관리하기	
		문자와 치수기입하기	
		도면 출력하기	
계	총 272page	100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내디자인 교과서에서 전통가옥에 대한 관련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습부분 또한 4시간 분량으로 ‘한국 전통 이미지의 재료 계획’ 만 수록되어 있다. 교과서 전체 페이지 중 1.65%에 해당하는 양으로 전체 교과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실내 디자인의 이론부분과 실습부분을 합하면 272page 중 20.5page이며 7.55%로 매우 적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실습 내용에 비해 내용적인 면이나 중요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전통가옥 관련 수업에 대한 동기 유발에도 문제점이 될 수 있다.

[표 3] 실내디자인의 변천 단원 구성 및 비율

중단원	소단원		쪽수(page)			비중도(%)			
			소단원	계	중단원	계	중단원	계	
중단원 도입			1	1	1	6.2	6.2	6.2	
우리 나라 의 실내 디자인	1.삼국시대	(1) 고구려	2.4	3.3	15	15	20.6	93.8	
		(2) 백제	0.3			1.9			
		(3) 신라	0.6			3.7			
	2.고려시대		0.7	0.7		4.4	4.4		
	3.조선시대	(1) 주택		1.2		9.9	7.5		61.9
		(2) 공간별 실내디자인 과 가구 및 기물	1)안방	2.6			16.3		
			2)사랑방	2.7			16.9		
			3)부엌	1.8			11.2		
			4)대청	1.6			10		
	4.현대		1.1	1.1		6.9	6.9		
계			16page			100%			

현행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실내 디자인의 변천 단원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단원 구성 체계 및 교과서에서의 비중도를 보면 [표 3] 3)과 같다.

여기서 비중도(%)는 실내디자인 교과서에서 ‘실내 디자인의 변천’ 단원 전체 페이지 수에 대한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⁴⁾ 이 내용들을 소단원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도표화한 것이 [표 3] 과 [표 4] ⁵⁾와 같다. 우리나라의 실내디자인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현대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3)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실내디자인, 2003. p.22~37 의 내용을 도표화함

4) ‘실내디자인의 변천’ 단원은 ‘실내디자인’ 교과 전체 쪽수의 5.9%(16/272page)를 차지하고 있다.

5)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실내디자인, 2003. p.22~37 의 내용을 도표화함

[표 4] 실내디자인의 변천 단원 내용

소단원		내 용		
우리 나 라 의 실 내 자 인	1.삼국 시대	(1)고구려	귀족과 서민으로 나누어진 신분 제도에 따라 주거 형태도 서로 달랐다.	
		(2)백제	건축물과 주역이 고구려와 큰 차이가 없다.	
		(3)신라	주택의 구조나 장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두었는데 그 당시의 주택 수준이 높고, 화려한 장식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2.고려시대	고려의 주택은 온돌과 마루가 공존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택 모습이다.		
3.조선 시대	공간별 실내 디자인 과 가구 및 기물	(1)주택	조선의 주택은 크게 행랑채, 사랑채, 안채의 세 공간으로 구분되었고, 각 공간의 사용자나 기능이 모두 달랐다.	
		1) 안방	안방의 바닥은 온돌에 장판지로 마감한 후 들기름을 먹여서 윤기가 나고 내수성을 가지도록 하였고 벽과 천장은 종이로 도배를 하였다. 가구에는 장, 농, 반닫이, 함과 궤, 경대 등이 있었다.	
			2)사랑방	사랑방의 꾸밈은 간결하고 소박하였고 문방기구와 취미생활을 위한 가구들만을 두었다. 가구에는 책장, 탁자, 문갑, 서안, 평상, 고비, 병풍 등이 있었다.
			3) 부엌	대가족을 위한 식사준비와 갖은 제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으며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였다. 조리 작업이나 수납을 위한 뒤주, 천장, 소반 등을 두고 사용하였다.
				4) 대청
4. 현대	서양식 주택이 우리의 주생활에 미친 영향은 주택의 구조, 재료, 평면, 설비, 위생면에서 다양하였다.			

2-3. 실내디자인과의 교육 실태 조사

2-3-1. 설문 조사 및 분석

1. 조사 내용 및 방법

우리나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실내디자인계열 학과 설치 현황은 2004년까지 공업계열에서 7개, 가사·실업계열에서 1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추가로 신설, 또는 과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실내디자인계열 과(科)개설 명칭이 실내디자인과/실내건축디자인과/실내건축학과/인테리어 디자인과/건축인테리어과로 명칭이 개설되어 있다.

(1) 조사 내용

본 조사의 목적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내디자인의 교과서 중 ‘실내디자인의 변천’ 단원에 대한 교과 내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조사 내용은 설문지를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구분하였으며, 학생용·교사용 설문지는 전통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수업의 현황, 교과 내용안을 조사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 구성내용은 각각 [표 5], [표 6] 과 같다.

[표 5] 실내디자인 변천단원의 교과내용에 관한 설문문항-학생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총문항수
일반적 특성	성별, 학년, 학과	3	20
전통교육	전통교육의 필요성, 관심도, 목적	6	
수업	실내디자인의 변천단원의 이해도, 이해수단, 관심도, 수업방식,	6	
교과내용안	실내디자인의 변천 단원의 시정부분, 독립 여부, 교과내용안, 단원구성, 이론과 실습병행	5	
계	20		

[표 6] 실내디자인 변천단원의 교과내용에 관한 설문문항-교사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총문항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교직경력, 전공, 전공자격증	5	21
전통교육	전통교육의 필요성, 관심도, 목적	6	
수업	실내디자인의 변천단원의 범위, 이해도, 지도방법, 학생의 관심도, 지도의 애로점	6	
교과내용안	실내디자인의 변천 단원의 시정부분, 독립 여부, 교과내용안, 단원구성, 이론과 실습 병행, 추가내용	6	
계	21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설문 조사는 2004년 3월 15일~4월 15일까지 한 달간 [표 7] 에서 제시된 학교 중 부산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교사 47명과 2·3학년 학생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 혹은 우편을 이용하였으며,

설문 조사의 대상인원과 회수율은 [표 8] 과 같다. 회수된 설문지는 빈도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했으며, 그 결과를 기초 분석, 전통에 관한 사항, 수업의 현황, 교과내용 개발 현황으로 구분하여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백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표 7]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실내디자인계열 과(科) 설치 현황

계 열	지 역	학 교 명	과 명	학 과 개 설 시 기
공업계열	서울	강남공업고등학교	인테리어디자인과	1994년
		강서공업고등학교	건축인테리어과	2001년
	부산	부산디자인고등학교	인테리어디자인과	1998년
	인천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실내건축학과	1995년
		부평여자고등학교	실내건축학과	1996년
	광주	송신공업고등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1997년
	경북	경주디자인고등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2001년
가사·실업 계열	울산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실내디자인과	1995년

*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교 포함.

[표 8] 설문지 응답자 수 및 회수율

구분	교사	학 생			합계
		2학년	3학년	소계	
대상인원	47	260	253	513	560
남	34	69	65	134	168
여	3	159	144	303	306
계	37	228	209	437	474
회수율(%)	78.7%	87.7%	86.6%	85.2%	84.6%

2. 기초분석

(1) 교사용

1) 일반적 사항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기본사항을 분석한 것이다.

연령별 분석에 따르면 실내디자인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의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았다. 또 이들 교사의 경력은 1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디자인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전공은 건축이 62.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디자인 18.9%, 공예가 10.8%로 나타났다. 건축실내디자인과나 실내 건축학과로 인해 건축을 전공한 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디자인이 전문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전공 교사가 많고 실내디자인을 전공한 교사는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실내디자인의 전문 교원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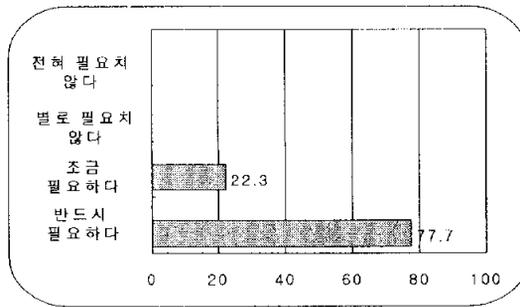
[표 9] 교사의 일반적 사항

항목	분항내용	응답인원(명)	비율(%)
연 령	① 20대	2	5.4
	② 30대	6	16.2
	③ 40대	24	64.9
	④ 50대	5	13.5
	⑤ 60대	0	0
	계	37	100
교육경력	① 5년 이하	4	10.8
	② 6-10년	11	29.8
	③ 11-15년	16	43.2
	④ 16-20년	6	16.2
	⑤ 21년 이상	0	0
	계	37	100
전 공	① 디자인	7	18.9
	② 공예	4	10.8
	③ 미술	0	0
	④ 건축	23	62.2
	⑤ 기타	3	8.1
	계	37	100
교사자격증	① 디자인·공예	3	8.1
	② 미술	0	0
	③ 디자인	6	16.2
	④ 공예	5	13.5
	⑤ 건축	23	62.2
	⑥ 기타	0	0
	계	3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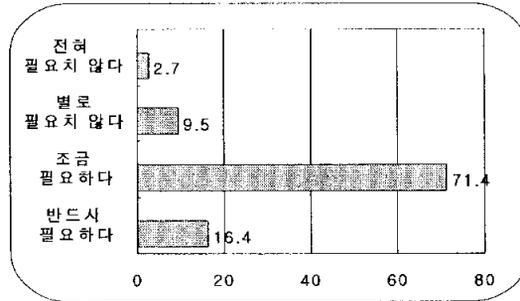
2) 전통 교육 관련 문항

① 전통 교육의 필요성

실내디자인 교육에서 전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교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가 77.7%, ‘조금 필요하다’가 22.3%로 질문에 응한 사람은 전부 전통 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학생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가 71.4%, ‘조금 필요하다’가 16.4%로 대부분의 학생들도 실내디자인 교육에서 전통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림 1] 전통 교육의 필요성(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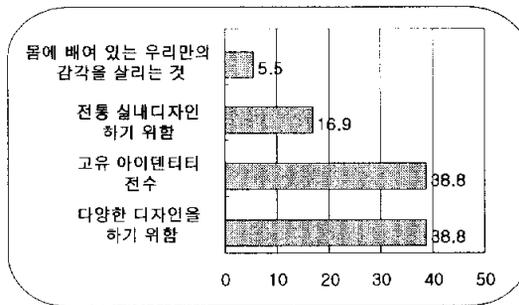
[그림 1-1] 전통 교육의 필요성(학생)

② 전통 교육의 필요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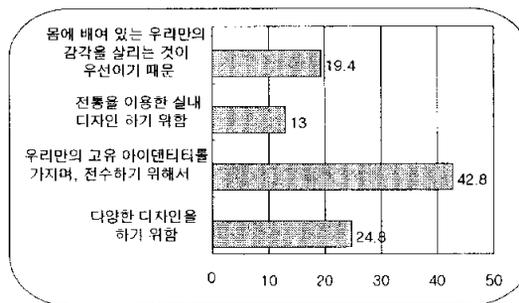
실내 디자인 교육에서 전통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교사들은 ‘우리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가지며, 전수하기 위해서이다.’와 ‘다양한

디자인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각각 38.8%씩 대답하였다. 학생들도 ‘우리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가지며, 전수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42.8%를 대답하였다.

실내디자인 교육은 우리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가지며, 전수하기 위해서 전통교육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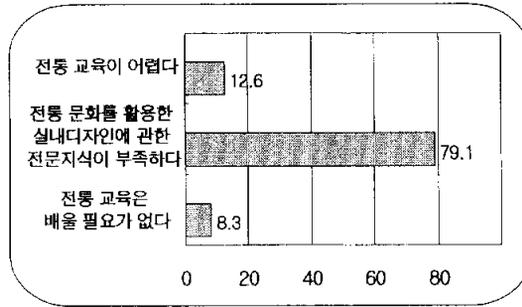


[그림 2] 전통 교육의 필요성 이유(교사)



[그림 2-1] 전통 교육의 필요성 이유(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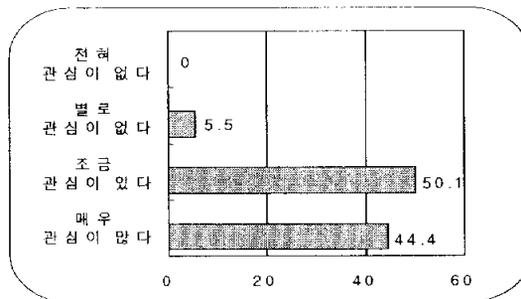
일부 학생들이 전통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실내 디자인교육에서 ‘전통 문화를 활용한 실내 디자인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라고 79.1%가 대답하였다. 전통 문화를 활용한 실내 디자인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내디자인 교육에서 전통교육은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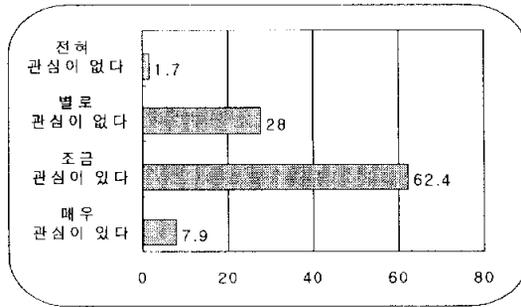
[그림 2-3] 전통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학생)

③ 전통 교육의 관심도

전통 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교사들은 ‘매우 관심있다’가 44.4%, ‘조금 관심있다’가 50.1%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전통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도 ‘조금 관심있다’가 62.4%, ‘매우 관심있다’가 7.9%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들 대부분이 전통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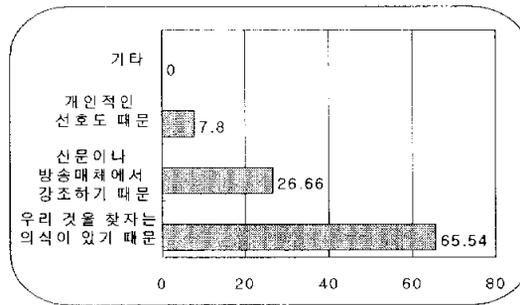
[그림 3] 전통 교육의 관심도(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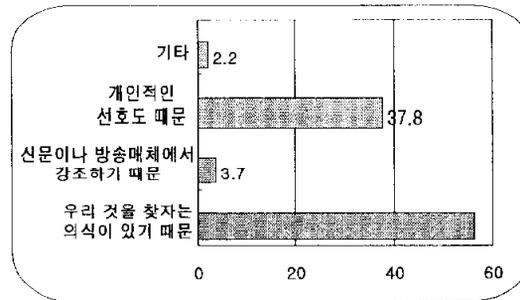
[그림 3-1] 전통 교육의 관심도(학생)

④ 전통 교육의 관심 이유

전통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교사들은 ‘우리 것을 찾자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는 이유가 교사들은 65.54%, 학생들은 56.3%로 우리 뿌리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전통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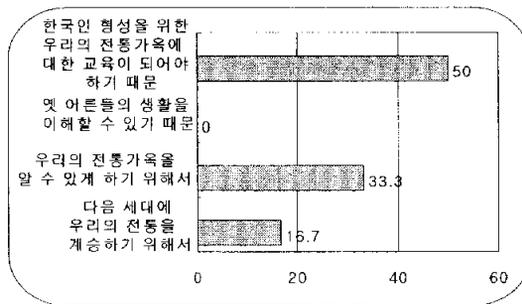
[그림 4] 전통 교육 관심 이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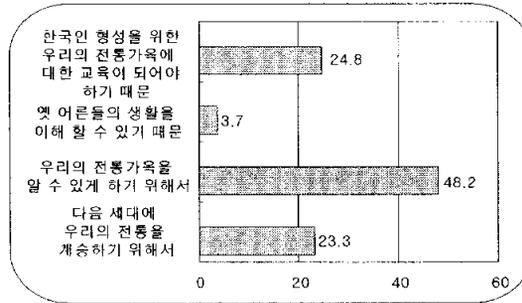
[그림 4-1] 전통 교육 관심 이유(학생)

3) 목적에 관련 문항

한국의 전통 실내디자인 교육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사들은 ‘한국인 형성을 위한 우리의 전통가옥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가 50%, ‘우리의 전통가옥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가 33.3% 대답하였다. 학생들은 ‘우리의 전통가옥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가 48.2% 대답하였다.



[그림 5] 한국 전통가옥의 교육 목적(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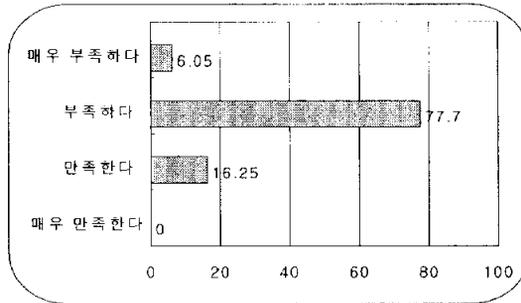
[그림 5-1] 한국 전통가옥의 교육 목적(학생)

4) 수업에 관한 문항

① 실내디자인의 변천단원의 범위

실내디자인의 변천단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매우 부족하다’가 6.05%, ‘부족하다’가 77.7% 대답하였다. 교사들은 현재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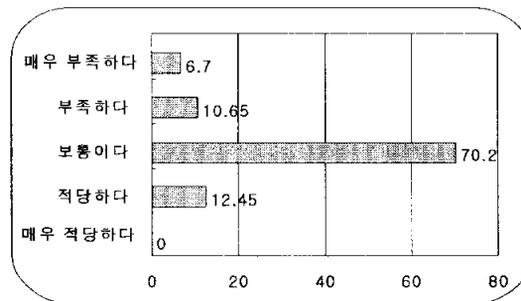
내디자인 교과서 내의 실내디자인의 변천단원의 범위에 대해 대부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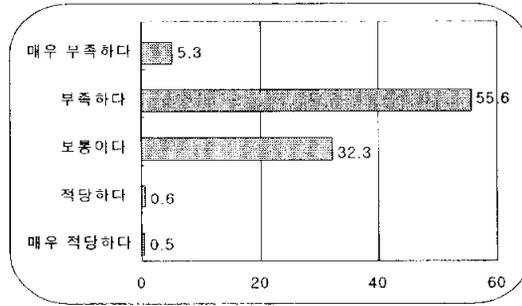
[그림 6] 실내디자인의 변천단원의 범위

② 실내디자인의 변천단원의 이해도

실내디자인 교과서에서 실내디자인 변천단원 내용의 이해도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이해도가 ‘보통이다’가 70.2%, 학생들은 교과서의 이해도가 ‘부족하다’가 55.6%, ‘보통이다’는 32.3%라고 대답하였다. 교사와 학생들은 실내디자인 교과서에서 실내 디자인의 변천단원의 내용 이해도는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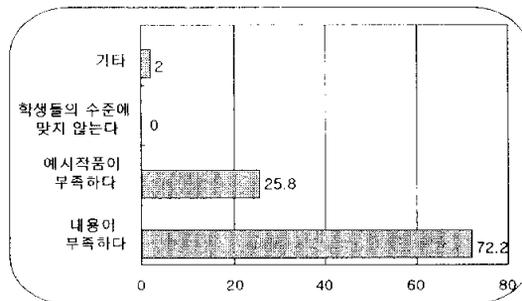


[그림 7] 실내디자인의 변천단원의 이해도(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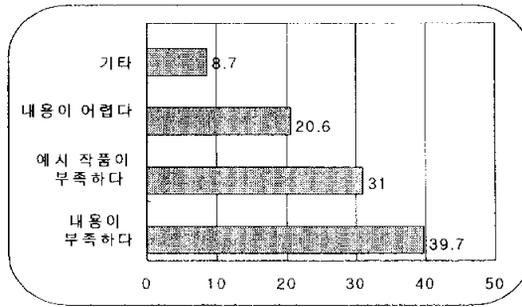


[그림 7-1] 실내디자인의 변천단원의 이해도(학생)

실내 디자인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보다 학생들이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내용이 부족하다’를 교사는 72.2%, 학생은 39.7%라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예시 작품이 부족하다’를 교사는 25.8%, 학생은 31% 대답하였다. 내용과 예시작품이 부족하다는 것이 실내디자인 교과서의 실내디자인 변천단원의 이해도가 적당하지 못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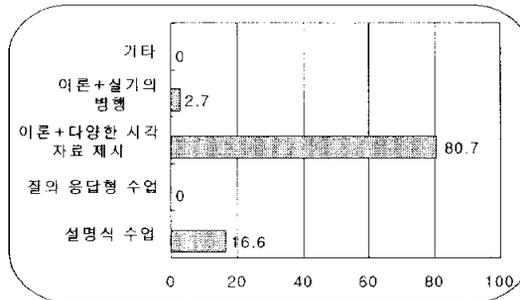
[그림 7-2] 내용의 부적절한 이유(교사)



[그림 7-3] 내용의 부적절한 이유(학생)

③ 실내디자인의 변천단원의 수업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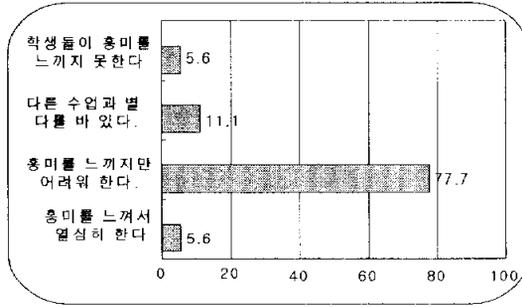
실내디자인의 변천단원의 수업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론+다양한 시각자료의 제시’를 80.7%, ‘설명식 수업’을 16.6%, ‘이론+실기의 병행’ 2.7%로 대답하였다. 실내디자인의 변천단원의 수업을 ‘이론+다양한 시각자료의 제시’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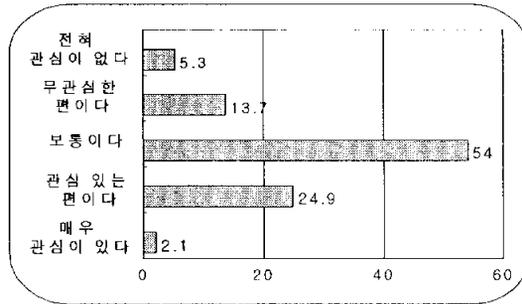
[그림 8] 실내디자인의 변천단원의 수업 형태

④ 실내디자인 변천단원의 관심도

실내 디자인의 변천단원을 지도할 때 학생의 반응은 ‘흥미를 느끼지만 어려워한다’가 77.7로 교사들이 대답하였다. 학생들도 ‘보통이다’가 54%, ‘관심 있는 편이다’ 24.9%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내 디자인의 변천단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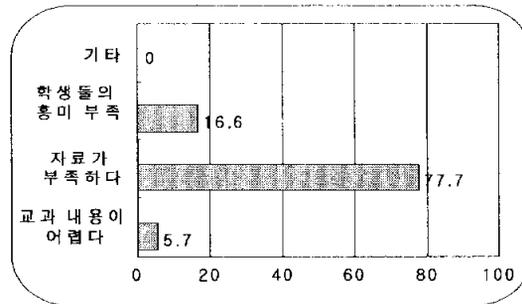
[그림 9] 지도시 학생의 반응



[그림 9-1] 학생들의 관심도

⑤ 지도시 애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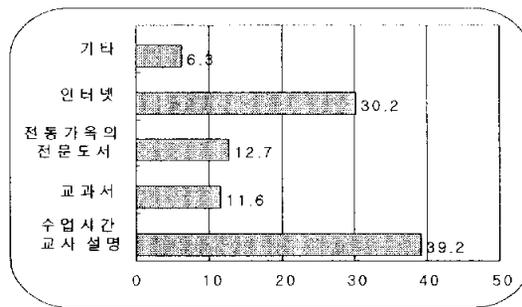
실내디자인의 교과서 내에 수록된 실내디자인 변천 단원을 지도할 때 ‘자료가 부족하다.’가 77.7%, ‘학생들의 흥미 부족’이 16.6%를 대답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료의 부족이 가장 큰 애로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지도시 애로점

⑥ 변천단원의 이해시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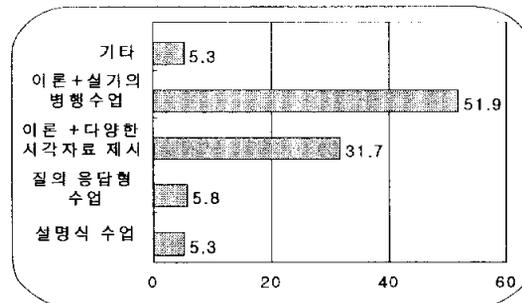
실내디자인 교과서 내에 수록된 실내디자인 변천단원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것에는 ‘수업시간의 선생님의 설명’이 39.2%, ‘인터넷’이 30.2%로 대답을 하였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과 인터넷을 통해서 실내디자인 변천단원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이해시 도움

⑦ 학습에 도움이 되는 수업 형태

실내디자인 교과서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수업형태로는 ‘이론+실기의 병행 수업’이 51.9%, ‘이론+다양한 시각자료의 제시’가 31.7%로 대답하였다. 학생들이 도움이 되는 수업 형태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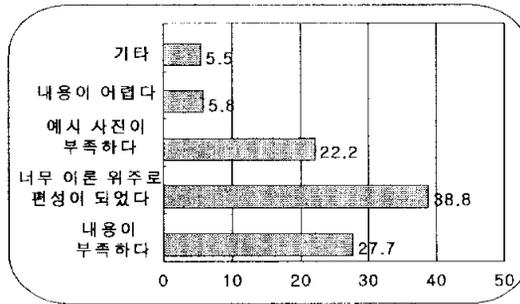


[그림 12] 학습에 도움이 되는 수업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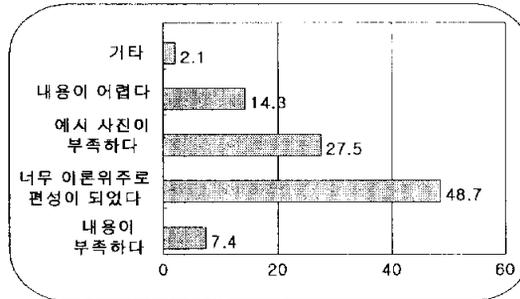
5)교과내용안에 관한 문항

① 교과서의 시정 부분

실내디자인 교과서의 실내디자인 변천단원을 시정한다면 ‘너무 이론위주로 편성이 되었다’ 를 교사들은 38.8% , 학생들은 48.7% 대담하였다. 교사와 학생 모두 현재 실내디자인 교과서의 실내디자인 변천단원이 너무 이론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시정하여야 한다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교과서 시정 부분(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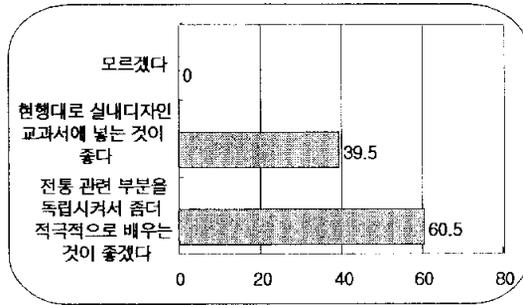


[그림 13-1] 교과서 시정 부분(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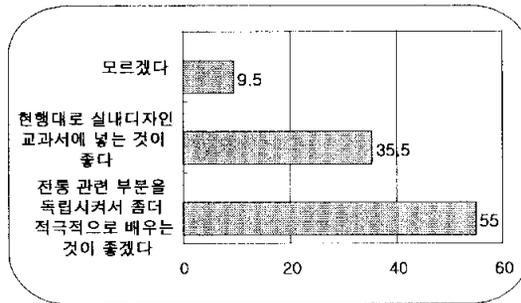
② 교과서 독립 여부

실내디자인 변천단원을 실내디자인 교과서에서 독립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전통관련 부분을 독립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이 좋겠다.’ 를 교사들은 60.5%, 학생들은 55% 대답하였다. 교사와 학생들이 실내디자인 변천단원을 실내디자인 교과서에서 독립시켜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교과서 독립 여부(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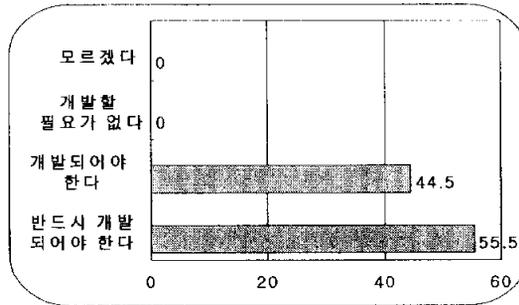


[그림 14-1] 교과서 독립 여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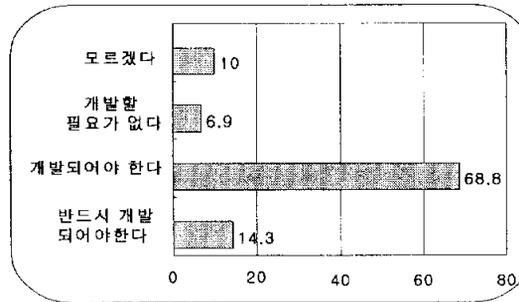
③ 교과 내용안

한국의 전통 실내디자인에 대한 교과내용안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가 55.5%, ‘개발되어야 한다.’는 44.5%로 교사들 전부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개발되어야 한다.’가 68.8%,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는 14.3%로 대부분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가옥 실내디자인에 대한 교과내용 개발에 대해서는 교사, 학생들 대부분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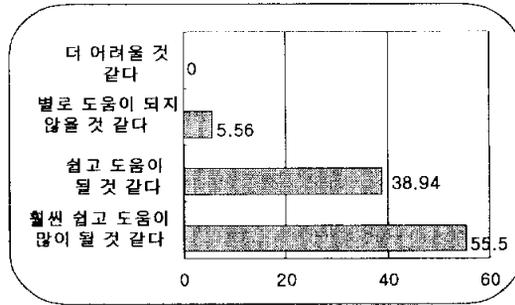
[그림 15] 교과 내용안 개발 여부(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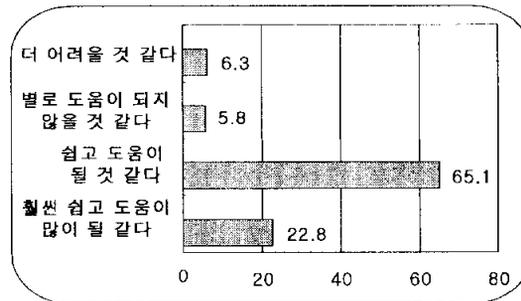
[그림 15-1] 교과 내용안 개발 여부(학생)

④ 단원 구성

실내디자인 변천사와 구조, 재료, 가구, 색채의 내용으로 단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훨씬 쉽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가 55.5%, ‘쉽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38.94%로 대답하였고 학생들은 ‘훨씬 쉽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22.8%, ‘쉽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65.1%로 대부분 쉽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 대부분이 교과내용 개발시 변천사와 구조, 재료, 가구, 색채의 내용으로 단원을 구성하는 것이 쉽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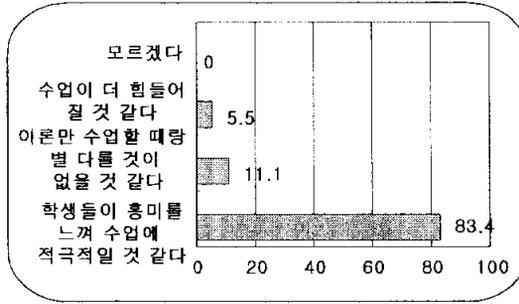
[그림 16] 단원 구성(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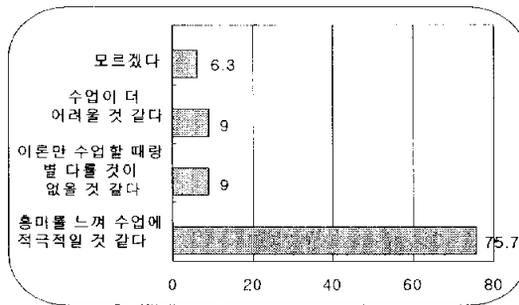
[그림 16-1] 단원 구성(학생)

⑤ 이론과 실기 병행 여부

교과 내용안 개발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교과 내용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껴 수업에 적극적일 것 같다’는 83.4%로 대답하였다. 학생들은 ‘흥미를 느껴 수업에 적극적일 것 같다.’가 75.7% 대답하였다. 교사와 학생들 대부분 교과 내용안 개발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교과 내용안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나타났다.



[그림 17] 이론과 실기 병행 여부(교사)



[그림 17-1] 이론과 실기 병행 여부(학생)

2-3-2. 문제점 및 개발 방향

조사된 여러 요인을 토대로 분석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내디자인 전통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내디자인 교과서 내용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 교사들이 실내디자인의 변천단원을 지도시 내용이 간단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내용이 부족하다. 이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첨부해서 교과 내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서 내용이 이해하기에 어렵다.

교과서의 내용에 따른 예시 자료가 부족하다. 한국 전통가옥의 역

사뿐만 아니라 구조도 이론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다. 또한 예시자료가 수록되어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렵게 편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예시작품을 많이 첨부하고 설명위주의 이론을 표와 같이 편성하여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과서가 너무 이론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실내디자인 변천단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너무 이론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루하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교과서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동기유발과 흥미를 느끼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교과 내용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 교과서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내디자인의 변천, 구조, 재료, 색채 등의 단원으로 나누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실내디자인 교과서 내의 실내디자인 변천단원을 조선시대의 전통가옥에 대한 실내디자인 교과 내용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보겠다.

3. 조선시대의 전통가옥을 통한 실내디자인 교과 내용안 제시

3-1. 교과내용 개발의 방향

한국의 전통가옥의 변천사와 전통가옥 중에서도 조선시대의 전통가옥에 대한 교과내용안을 개발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주제들은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극히 미약하고 이론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전통가옥을 통한 실내디자인 교과와 단원 제시 모형으로 기존의 이론 위주의 양상과는 다른 실기를 병행한 내용 구성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교과내용안 개발은 기존 교과서에서 ‘실내디자인 변천’ 단원에 대한 나름의 대안 모색일 뿐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본 논문의 내용 선정은 학습자들이 조선시대의 전통가옥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 이해와 더불어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주안점을 두었다.

새로운 교과 내용안의 제시에 있어서 고려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구성한다.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동기유발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 시각자료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동기 유발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여 실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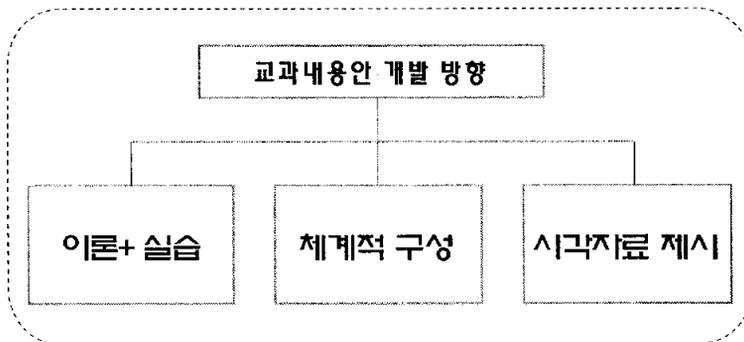
둘째,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학습자들이 전통에 관련된 학습내용을 어려워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실내디자인 변천사에 대한 학습 내용을 보충하고 전통가옥에 대한 구조, 재료, 색채 부분으로 구분하여 학습자들이 전통가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셋째, 시각자료를 많이 제시하여 학습자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기존의 교과서에 시각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면서 학습하기에는 시각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시각자료(평면도, 집 모양, 가구, 색채 등)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빠른 이해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표 10] 교과내용안 개발 방향



이에 따른 교과 내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11], [표 12] 과 같다.

[표 11] 개선 교과내용의 실제안

현행교과서	문제점	개선방향	개선교재	개선점
1. 삼국시대 ①고구려 ②백제 ③신라 2. 고려 시대 3. 조선 시대 ①주택 ②공간별실내 디자인과 가구및 기술 1)안방 가.장 나.농 다.반닫이 라.함과 궤 마.경대 2)사랑방 가.책장 나.탁자 다.문갑 라.서안 마.평상 바.고비 사.병풍 3)부엌 가.뒤주 나.찬장 다.소반 4)대청 가.자리 나.발 4. 현대	1.역사의 흐름에 따라 크게 구분 2. 이론위주의 편성 3. 시각자료 부족	1.실내 디자인의 요소에 맞추어 좀더 체계적으로 구분 2. 동기유발을 위해 실습 추가 3.쉽고 빠른 이해력을 도울 수 있도록 시각 자료 활용	1.전통가옥의 변천사(역사)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4) 통일신라 5) 조선 2. 전통가옥의 구조 1)한국의주거 2)지역별구조 3)구조별분류 4)기능적분류 5)구조 실습 3. 전통가옥의 재료 1)바닥 2)벽 3)창호 4)천장 5)재료 실습 4. 전통가옥의 가구 1)안방가구 2)사랑방가구 3)부엌가구 4)가구실습 5. 전통가옥의 색채 1)색채 2)색채 실습	1.역사와 구조, 재료, 색채로 실내디자인의 구성요소에 따라 구분 2.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구성편성 3.많고 다양한 시각자료 구성

[표 12] 개선 교과내용 실제안(한단원 예시)

현행 교과서	문제점	개선방향	개선교재	개선점
<p>3. 조선시대</p> <p>① 주택조선의 주택은 크게 행랑채, 사랑채, 안채의 세 공간으로 구분되었고, 각 공간의 사용자나 기능이 모두 달랐다.</p>	<p>1. 이론위주로 편성</p> <p>2. 설명만 있고 시각자료 없다.</p> <p>3. 구조에 대한 설명이 체계적이지 못하다.</p>	<p>1. 실습을 추가</p> <p>2. 시각자료 첨부</p> <p>3.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분</p>	<p>2. 전통가옥의 구조</p> <p>(1) 한국의 주거</p> <p>1) 평면유형에 따른 분류</p> <p>2) 신분제도에 따른 분류</p> <p>① 상류주택</p> <p>② 중류주택</p> <p>③ 서민주택</p> <p>(2) 지역별 구조</p> <p>① 관북형</p> <p>② 관서형</p> <p>③ 중부형</p> <p>④ 남부형</p> <p>⑤ 제주도형</p> <p>⑥ 울릉도형</p> <p>(3) 구조별 분류</p> <p>① 안채</p> <p>② 사랑채</p> <p>③ 사당</p> <p>④ 행랑채</p> <p>⑤ 별당채</p> <p>⑥ 곳간채</p> <p>(4) 기능적 분류</p> <p>① 대청</p> <p>② 방</p> <p>가. 안방</p> <p>나. 사랑방</p> <p>③ 부엌</p> <p>④ 찬방</p> <p>(5) 구조 실습</p>	<p>1. 이론과 실습을 병행 편성</p> <p>2. 시각자료와 표 작성 첨부</p> <p>3.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편성</p>

3-2. 교과안의 학습주제 설정

본 연구에서 교과내용안 개발을 위한 학습주제를 설정함에 있어 실내디자인의 구성요소를 서양의 건축을 통해 학습하기 보다는 가장 많이 현존하고 접하기 쉬운 조선시대의 전통가옥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정하였다. 또한 우리의 전통을 알고 나아가 학업을 통해 지식만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교과내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따라서 전통 주택과 나아가 현대 주택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력을 길러 줄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학습 주제라고 생각하여 학습 주제를 설정하였다.

3-3. 조선시대의 전통가옥을 통한 실내디자인 교육을 위한 교과안

3-3-1. 한국 전통 가옥의 특성

한국 전통가옥양식은 단아한 아름다움과 순박한 큰 맛을 겸하여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큰 맛은 한국 사람들의 순박하고 순후한 생활 태도에서 오는 것이며, 자연에 순응하는 무기교에서 오는 것이고, 인위적인 기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건축 계획 면에 있어서는 인위적인 기교를 많이 쓰지 아니하였으며, 시공방법에 있어서도 기교가 적은 자연미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재료 사용에 있어서도 목재 특징을 잘 살려서 썼으며, 이와 같은 무작위한 기법의 요소가 한국 전통가옥에 있어서 자연과 조화하는 특성을 더 나타나게 만들었다.

주거가옥형태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짚어 보면,

㉠ **주거가옥 중 한옥은 기단이 높다.**

기단이라 부르는 댕돌(또는 죽담)을 여러 겹 쌓아 높게 만들고 그 위에 주춧돌과 기둥을 놓아 집을 짓는 방법이 보편화 되었다. 이렇게 땅의 습기를 줄여 쾌적하게 살 수 있게 했다.

㉡ **처마의 길이가 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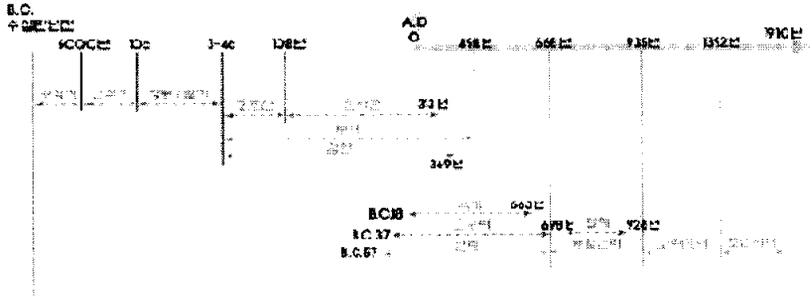
깊은 처마는 여름철에 태양이 높이 떴을 때 피약별을 가린다. 그들이 저서 시원함은 물론 그늘진 곳과 피약별이 내리쬐는 곳과의 만남이 대류가 생겨 바람이 인다. 겨울철엔 낮게 뜬 태양 별이 방안 깊숙이 들어 집안이 따뜻해진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며, 찬바람에 밀려 나가다가도 깊은 처마에 걸리면 머문다. 더구나 숙인 서까래가 앞을 가로막아 더운 공기는 오래 머물기에 그만큼 따뜻하다. 이처럼 빼어난 외형만큼이나 이러한 과학적인 요소들의 훌륭한 기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 **전통주거양식에는 인격이 있다.**

특히 한옥이 그러한 데 한옥의 모든 규칙은 우리 몸과 맞는 조화로운 크기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리저리 비교하면서 분석할 수 있다.⁶⁾ 벽에서의 창과 문의 높이, 크기가 그러하며 천장의 높이는 앉아서 생활하는 방 높이와 서서 움직이는 대청의 높이를 달리 함으로서 생리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까지 고려했다.

6) 신영훈, 전게서, p.25

3-3-2. 전통가옥의 변천사(역사)에 관한 교육



[그림18] 시대의 흐름

1. 삼국시대

(1) 고구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한반도에 설립된 기원 후 4세기부터 10세기 전반까지는 우리나라의 건축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기이다.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의 북부에 걸쳐서 세워진 나라로, 귀족과 서민으로 나누어진 신분제도에 따라 가옥의 구조도 서로 달랐다. 귀족들의 주택은 지붕에 기와를 얹은 목조 가구식이었고, 서민들은 움집이나 원시적인 지상 건물에 기거하였다.⁷⁾

고구려의 생활상과 문화를 살펴보면, 귀족들은 중국과 같이 평상, 의자, 탁상 등의 가구를 사용하고 한 주택 안에 침실 외에 부엌, 수레간, 고기간, 우물간, 마구간과 같은 여러 채의 부속 건물이 갖추어져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실내에는 휘장을 드리웠으며, 방의 네 귀퉁이에는 나무 기둥 위에 두공(기둥머리 위에 평방 방향으로 가로로 끼여 주심도리를 받치고 있는 목재 부분)이나 기와지붕을 얹은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렸다.⁸⁾ 가구의 다리는 동물

7)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실내디자인, 2003, p.23

다리 모양을 본떠서 장식하였다. 따라서 고구려의 귀족은 화려한 생활을 하였고, 일반 서민들은 흙바닥에 구들을 설치하여 겨울에는 불을 때서 추위에 대비하였으며, 귀족들과 달리 좌식 생활을 하였다.

(2) 백제

초기 철기시대의 주택은 움집이었고, 특히 송국리형 움집은 움집안의 중심에 다시 원형으로 바닥을 판 특수한 움집이었으며, 백제의 주택건축에 계승되었다.⁹⁾ 백제는 여러 가지 풍습이나 생활상이 고구려와 같았으며, 건축물과 주택도 고구려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백제 역시 귀족계급은 기와집이고, 일반 백성들의 집은 초가집이었으며, 좌식과 의자식 생활이 귀족계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백제 주택 역시 고구려의 주택처럼 기능별로 한 채씩 지어져 전체적으로는 몇 채의 집들이 모여 하나의 큰 저택을 이루고 있었다.

(3) 신라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건국된 나라로, 불교의 전래나 문화의 발달도 가장 늦었다. 신라에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제한을 두었고, 주택의 구조나 장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규제를 두었다. 이러한 규제 내용으로 보아 그 당시의 주택 수준이 높고, 화려한 장식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신라 초기의 주택은 움집이나 지상주거의 초가집과 같은 주택으로부터 점차 발달하여, 건축자재가 발달하고, 계급의 분화가 뚜렷해지며, 계급 간에 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생김에 따라 진골계급의 주택이나, 육두품과 같은 상위계급의 주택은 목조

8)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실내디자인, 2003, p.24

9)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p.81

가구식의 민도리집 구조의 기와집으로 지어지고, 서민계급들의 집은 여전히 초가집이었다.¹⁰⁾ 신라의 가형토기를 보면, 주택의 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진 고상식(高床式) 주거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 일반적으로 마루 구조가 많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신라에서는 고구려와 달리 실내의 바닥에 마루를 사용하고 바닥에 난방을 하지 않았으며, 바닥에 돌이나 전을 사용한 고급 건축물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용단을 깔아 겨울의 추위에 대처하였다.¹¹⁾

2. 통일 신라 시대

귀족계급의 주택은 상당히 크고 화려한 주택이었으며, 백성들의 주택들도 상당한 수준의 건축이었다. 더욱이 현강왕 때에는 경주의 시가지에 초가집이 별로 없었고, 연기가 난다하여 숯으로 밥을 지을 형편이었다. 주택 바닥구조는 마룻바닥과 전바닥, 흙바닥, 그리고 기자형 구들바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기자형 구들바닥은 삼국시대의 백제와 고구려의 구들시설로 통일이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이다. 그리고 이 기자형 구들 고래는 백제에서부터 넓은 면적을 이루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아 방안 전체에 구들 고래를 놓은 온돌바닥으로 바꾸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¹²⁾ 통일신라시대에는 촘촘하고 세밀한 문양의 나전 칠기가 있었다고 하나, 대중화된 기물로서 나전 칠기 가구가 제작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이다.

3. 고려시대

10세기 후반부터 14세기 말에 걸쳐 있었던 고려는 통일 신라 시대

10)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p.83

11)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실내디자인, 2003, p.25

12)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p.144

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일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고려 시대에 와서 비로소 한 주택 내에 온돌과 마루가 공존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택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서민주택도 수혈이 아닌 지상주택이었으며 지붕은 짚이나 새(억새)로 이은 초가가 대부분이고, 기둥도 비교적 많이 세우지 않고 벽은 흙담으로 만든 정도였다.¹³⁾ 다만 관리들이나 지방의 부유한 사람들의 주택에서는 지붕마루 바닥으로 하였다.

한편, 난방에 있어서는 온돌이 서민주택에 주로 보급되었으며 귀족이나 상류계급의 주택에서는 그다지 보급되지 않았다.

고려의 왕족이나 상류층은 중국과 같이 의자식 생활을 하였고 침상, 평상, 의자, 탁상 등을 사용하였으며 평상과 침상에는 정교하게 짠 문석을 깔았고 궁실에서는 부인들이 창을 가리기 위하여 천으로 된 가리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대부분 흙바닥에 땅을 파서 아궁이를 만들고 그 위에 누웠으며, 이것은 겨울이 워낙 춥지만 숨이 적기 때문이었다.



[그림 19] 14) 고려시대 가옥

고려시대 후기에는 조선 시대에 일반화 되어 사용된 화초담이 처음

13) 건축사, 한국건축사, 공간출판사, 1997. p.176

14) <http://home.hanmir.com/~isujin/fram1.htm>

으로 나타나 담장에 기하학적인 선이나 꽃, 십장생 무늬 등을 그려 장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려 시대의 가구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없다.¹⁵⁾

4. 조선 시대

14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지속된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삼았으므로 정치, 사회, 예술 면에서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와는 차이가 많았다.

고려 말에 도입된 유교는 전반적인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주택 건물의 평면구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조상숭배가 민간신앙의 핵심이 되면서 조선시대의 사회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족, 그것도 대가족제도였다. 이 대가족제도는 주택 건축에 영향을 끼쳐 여러 세대가 한집에 거주하게 되어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남존 여비와 남녀유별의 사상으로 인하여 여인들을 주택 내에서 가장 깊은 안채에서 거주하게 하고 가족외의 모든 남성들과 격리시켰다. 안채와 사랑채를 별개의 건물로 배치하여 부부 사이에서도 취침뿐만 아니라 식사, 기거 등의 모든 일상생활을 따로 하여, 주택 공간이 성(性)에 의해 구분되는 특성을 나타내게 되었다.¹⁶⁾

3-3-3. 전통가옥의 구조에 관한 이론

1. 한국의 가옥

주택이라는 말은 ‘머무를’ 주(住)와 ‘집’ 택(宅)의 합성어로서 그 뜻은 사람이 들어 사는 집을 말한다. 이 말은 순수한 우리말인 ‘집

15) 교육인적자원부, 교등학교 실내디자인, 2003, p.26

16) 교육인적자원부, 교등학교 실내디자인, 2003, p.27

'에 대한 한자어이며, 같은 한자어인 주거(住居)와 유사하나 주택이 집 자체의 건물만을 지칭한다면 주거는 집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주거문화는 구석기 시대의 동굴 및 생나무를 이용한 주거에서 출발하여 수혈주거, 귀틀집, 초가, 기와집의 형식을 거쳐 현재의 주거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주거형태는 사회제도, 신분계급, 각 지역의 환경 및 기후특성 등에 의하여 변화, 발전되어왔다.

(1) 평면 유형에 따른 가옥

홀집은 퇴칸을 제외한 평면이 한 일자 한 줄로 늘어선 집을 말한다. 분포 지역은 함경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 겹집은 중앙에 대청을 두고 양쪽에 구들을 배치하되 평면이 홀 또는 겹으로 배열되는 집이며 분포지역은 대표적으로 제주도의 살림집에서 볼 수 있으며 남해안 일부 지방에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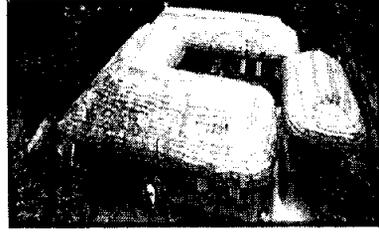
양통집은 기둥을 3열로 배열하고 각 공간을 2줄로 배치한 집을 말하며 각 공간이 3겹으로 되는 사방집(세겹집)도 여기에 포함된다. 분포 지역은 함경도, 동해안, 안동지방 등지에 주로 분포한다.

[표 13] 평면 유형에 따른 가옥

	모 양	분포지역
홀 집		함경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
겹 집		제주도, 남해안 일부
양통 집		함경도, 동해안, 안동지방 등지



[그림20] 17) 홀집



[그림21] 18) 곶집

(2) 신분제도에 따른 가옥

1) 상류주택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고루 갖추었던 조선시대 상류층의 솜을 대문이 있는 주택을 상류주택이라 한다.

상류주택의 배치와 평면은 대가족제도에 의하여 한 주택 내에 보통 3대에서 4대에 이르는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남녀유별에 의하여 형성되기 시작한 내외법¹⁹⁾(内外法)에 따라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와 여성의 공간인 안채를 따로 짓고, 설사 한 지붕 밑에 연이어 건립한다 하여도 공간적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같은 집 안에서 생활하는 많은 술거노비(率居奴婢)들을 위하여 행랑채를 세우고, 또 집 밖에 거처하는 외거노비(外居奴婢)들을 위하여 가람집(또는 호지집)을 집 바깥터에 건립한다. 한편 종가에서는 조상 사대인 고조고비, 증조고비, 조고비, 고비의 신위를 모시는 사당을 주택 담장 안에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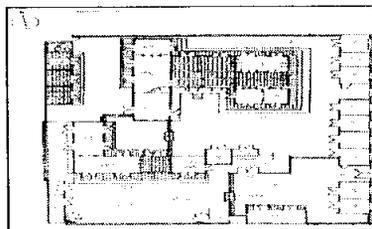
17) <http://home.hanmir.com/~isujin/framl.htm>

18) <http://home.hanmir.com/~isujin/framl.htm>

19)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p.105



[그림22] 상류주택 20)



[그림23] 21) 중류주택

2) 중류주택

중류주택은 중인계급과 서리, 군교들의 주택인데, 특히 중인계급은 한품서용으로 그 품계의 상한선이 있는 것뿐이지 경제적으로는 양반계급과 별 차이가 없어 주택의 모습은 상류주택과 같은 격식을 이루고 있다. 장방형의 대지에 줄행랑채, 사랑채, 안채, 서고, 사당채가 독립된 채로 구성되어 행랑마당, 사랑마당, 아나당, 옆마당 등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마당들을 형성하고 있다. 길가에 면한 행랑채의 대문간을 들어서면 앞에 내외벽이 있어 내외벽 앞을 돌아 안마당에 이른다. 사랑채는 침방, 사랑방, 대청, 작은 사랑이 ㄱ자형평면을 이루고, 안채는 부엌, 안방, 윗방이 동서에 면하여 일렬로 늘어서고 이와 ㄱ자로 꺾인 곳에 대청과 건넌방들이 있다. 건넌방들은 앞뒤로 나뉘어져 있고, 사이에 작은 대청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평면은 비록 소수의 실례기는 하지만 중인 주택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측간이 서민주택과는 다르게 여성들만이 사용하는 “내측”과 남성들만이 사용하는 “외측”으로 따로 건립되었다. 또 이 주택의 대문은 본래 평대문이었는데 1900년대에 다른 곳의 솜을 대문을 매입하여 이정한 것이라 한다.²⁰⁾

20) <http://web.edunet4u.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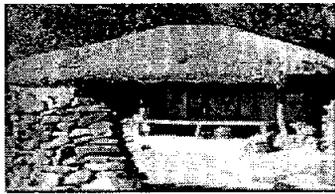
21)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p.104

3) 서민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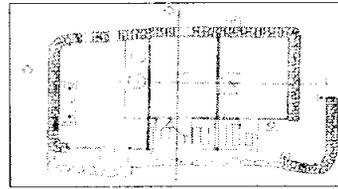
민가(民家)란 백성의 집이란 뜻이지만 일반적으로 중·하류층의 일반 서민들이 살았던 집을 ‘민가’라 부른다.

민가의 형태는 지형적, 기후적 여건, 지방의 경제 상태 등에 따라 규모나 건물 배치 방식이 달랐으며 특히 기후의 영향으로 지방마다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다.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으므로 주택을 지을 때도 장식적인 면보다는 기능적인 면을 더 중시하여 대부분 방과 대청, 부엌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를 지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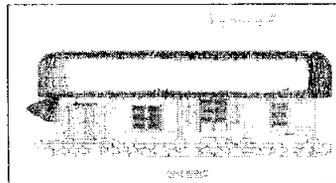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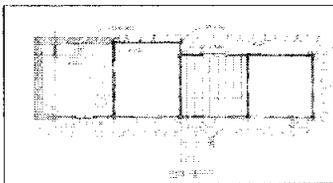
서민들이 거주하는 일반 농가에서는 대부분 벧짚으로 이은 초가지붕을 엮었다. 이 초가지붕은 겨울에는 열을 뺏기지 않고 여름에는 강렬한 태양열을 차단해주며 구하기 쉽고 비도 잘 스며들지 않아 지붕의 재료로 가장 널리 쓰였다. 초가지붕은 민가를 상징할 정도로 가장 흔히 쓰인 서민주택의 지붕형태이다.



[그림24] 초가지집²³⁾



[그림25] 24)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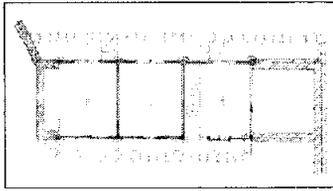


22)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p.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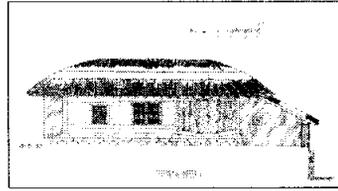
23) <http://www.a21.co.kr/goarch>

24)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p.104

[그림26] 25) 안채 평면도



[그림27] 26) 안채 정면도



[그림28] 27) 아래채 평면도

[그림29] 28) 아래채 정면도

[표 14] 주택의 구조

구분	서민주택	중류주택	상류주택
벽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벽 구조 · 흙+돌, · 널판의 판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반죽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반죽 마감 · 방화장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쪽 지게문 · : 안방, 마루 · 판장문 : 부엌 · 분합문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합문 사용 · 다양한 살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발기 : 대청 · 띠살창 : 덧문 · 다양한 살짜임
바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의 거처실은 모두 온돌 · 우물마루:대청, 곳간 · 장마루 : 광, 디락 · 흙 : 광, 부엌, 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의 거처실은 모두 온돌 · 우물마루, 장마루가 대부분임 · 마루는 소멸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의 거처실은 모두 온돌 · 우물마루, 장마루가 대부분임 · 마루: 소멸
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종이반자 · 마루천장: 연등천장 · 추가는 샷갓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종이반자 · 마루천장: 연등천장 · 샷갓반자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종이반자 · 마루천장: 연등천장 · 우물천장 · 샷갓반자는 없음

25)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p.104

26)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p.104

27)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p.104

28)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p.104

[표 15] 주거건축의 용도와 형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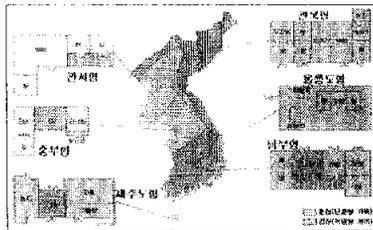
용도	형태	형태 분류
사대부집	곱은 자집 (꺾음집)	□ 자집 · ㄴ 자집 · ㄷ 자
민 가	곱은 자집	곱은 자집(중부, 자연농) : ㄷ ㄷ 자 ㄷ 자집 (경기, 자연농) : ㄷ □ 자 □ 자집 (전국, 대 농) : ㄴ 자(사대부)
	한일자집	외통집(전국, 소작농) 양통집(함경, 태백줄기, 자연농) 쌍채집 꺾 집(남도, 자연농)

[표 16] 민가의 배치방법

외채집	쌍채집	세채집, 네채집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60px; margin: 0 auto;">살림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마당</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60px; margin: 0 auto;">살림채</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60px; margin: 5px auto;">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뒷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 auto;">○ 마당</div>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사랑채</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60px; margin: 0 auto;">살림채</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60px; margin: 5px auto;">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뒷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 auto;">○ 마당</div>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사랑채</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right: 5px;">분 체</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margin: 0 auto;">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40px; margin-bottom: 5px;">뒤뜰</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60px; margin-bottom: 5px;">살림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 auto;">○ 마당</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60px; margin: 0 auto;">살림채</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60px; margin: 5px auto;">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뒷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 auto;">○ 마당</div>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사랑채</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60px; margin: 5px auto; text-align: center;">행랑채</div> </div>

2. 지역별 주거

아래 그림에서 보면 한국의 전통가옥은 지역과 기후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다.



[그림 30] 지역별 주거가옥 형태(29)

(1) 관북형

함경도와 강원도 일대에 분포된 이 형은 부엌, 정주간(정지방)과 다른 방들의 일부가 “ㄷ” 자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명 이를 “ㄷ자형 주택” 이라고도 한다.³⁰⁾

관북형은 폐쇄적인 가옥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대청마루가 없고 방은 ㄷ자형으로 배치된 겹집으로 정주간이 있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정주간은 부엌과의 사이에 벽이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따뜻한 공간으로 추운 겨울의 식당과 거실 역할을 한다.

(2) 관서형

관서형은 평안도와 황해도 북부의 일부지방에 분포된 형으로 부엌과 방들이 한 줄로 구성되어 “—자형” 이라고도 한다.³¹⁾ 또 부엌과 방 두개가 연이어 구성됨으로써 “삼간형” 이라고도 하며 이런 유형을 전국적으로 가난한 서민주택들의 주택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형” 으로 분류한 학자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몸채를 “—자형” 으로 하고 여기에 따로 광, 외양간, 측간 등이 하나의 채로 구성되어 부속채를 이루게 된다. 마루가 좁아지고 부엌이 가옥의 중심에 위치하는 —자형 홑집이 많다.

(3) 중부형

황해도 남부와 경기도, 충청도 일대의 중부지방에 분포된 형으로 “ㄱ자”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ㄱ자형” 이라고 한다.³²⁾ 조선시대 말에는 점차 지방의 도시에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를 “도시형” 으로 분류한

29) <http://home.hanmir.com>

30)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p.375

31)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p.375

32)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p.375

학자도 있다. 특히 이 유형은 “고패집”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이 형이 한양과 같은 도심에서 건립될 때에는 ㄱ자형에 문간과 사랑방, 광·측간 등이 한 지붕 속에 연이어져 “ㄷ자형” 평면을 이루게 된다. 중부형은 대청마루가 있으며 ㄷ자형 홑집이 많다. 관북의 폐쇄적 구조와 남부의 개방적 구조의 점이적 형태를 띠고 있다.

(4) 남부형

부엌, 방, 대청마루, 방이 일렬로 구성되어 “--자형”이라고도 한다.³³⁾ 그러나 판서형의 --자형과 다른 것은 대청마루가 방과 방 사이에 있어 더운 여름철에 대비한 것이다.

이 형으로 된 몸채 이외에 광, 헛간, 외양간, 측간 등으로 구성된 부속채가 별도로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형의 개방적 구조로 여름의 무더위와 관계 깊고 대청마루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5) 제주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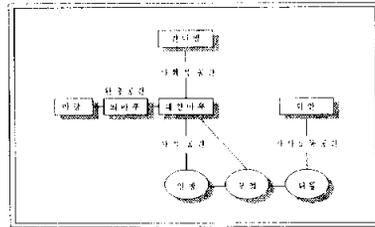
제주도라는 특정지역인 섬에 분포된 형으로 중앙에 대청마루인 상방을 두고 그 서측으로 부엌과 작은 구들, 동측으로 큰 구들과 고평을 배치하였다. 큰 구들은 부모들이, 작은 구들은 자녀들의 공간이고, 부엌의 부뚜막은 작은 구들쪽과 반대되는 위치에 두어 취사시의 열이 방에 들지 않도록 하며, 또 큰 구들과 작은 구들의 구들고래들은 방 전체의 3분의 2 정도만 깔리는 것이 특징이다. 온돌 구조가 단순하며(아궁이 위치가 방과 반대), 방 뒤쪽에 고평을 두어 물건을 보관한다. 고평은 온돌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주로 곡류, 두류, 유채 등을 향아리에 넣어 두는 저장 공간이다.

(6) 울릉도형

33)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p.376

울릉도형은 가옥 주위에 겨울의 폭설에 대비하여 우데기라는 방설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옥과 우데기 사이의 공간을 겨울철 작업 공간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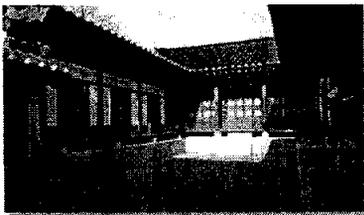
3. 구조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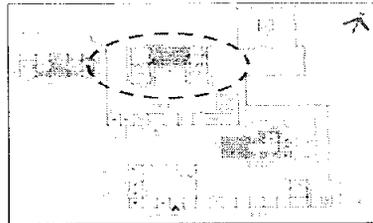
[그림 31] 주택의 평면구성과 기능

(1) 안채

안채는 집안의 주인마님을 비롯한 여성들의 공간으로 대문으로부터 가장 안쪽에 위치하였으며 보통 안방, 안대청, 건넌방, 부엌으로 구성된다. 안채의 안방은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실내 공간 중에서도 상징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출산, 임종 등 집안의 중요한 일이 이뤄지던 여성들의 주된 생활공간이다.



[그림 32] 안채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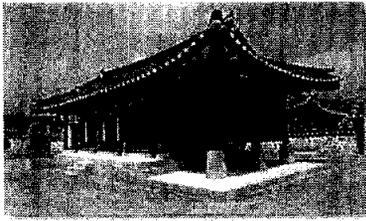
[그림 33] 35)안채 배치도

34) <http://www.a21.co.kr/go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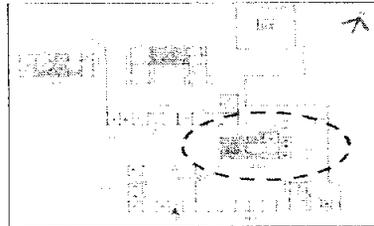
35) 신영훈, 한옥의 향기, 대원사. 2000. p.127

안채는 위치상 대문으로부터 가장 안쪽인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생활을 꺼려하는 남편이나 친척 외에는 남자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성들의 외부와의 출입을 제한하던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공간배치라고 볼 수 있다.

(2) 사랑채



[그림34] 사랑채 36)



[그림35] 37)사랑채 배치도

사랑채는 외부로부터 온 손님들에게 숙식을 대접하는 장소로 쓰이거나 이웃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집안 어른이 어린 자녀들에게 학문과 교양을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또한 사대부 남자들이 모여서 학문에 대해 토론을 하고, 시를 짓거나 거문고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문화생활을 한 것도 사랑채에서였다. 부유한 집안의 경우는 사랑채가 독립된 건물로 있었지만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주로 대문 가까이의 바깥쪽 방을 사랑방으로 정해 남자들의 공간으로 사용했다.

(3) 사당

조선시대에는 조상숭배의식의 정착과 함께 중상류의 주택에는 대문으로부터 가장 안쪽, 안채의 안대청 뒤쪽이나 사랑채 뒤쪽 제일 높은 곳에 ‘사당’이라는 의례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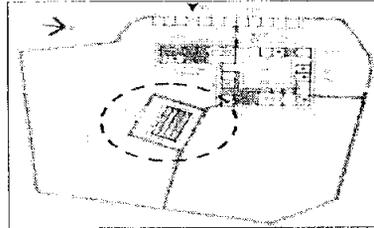
36) <http://www.a21.co.kr/goarch>

37) 신영훈, 한옥의 향기, 대원사. 2000. p.127

보통 사당에는 4개의 신위를 모시는데 서쪽부터 고조의 신위, 증조의 신위, 할아버지의 신위를 모시며 마지막에 부모의 신위를 모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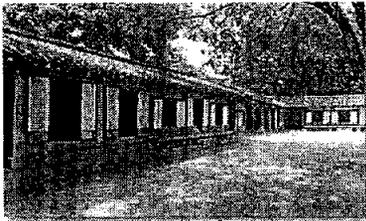
[그림36] 38)사당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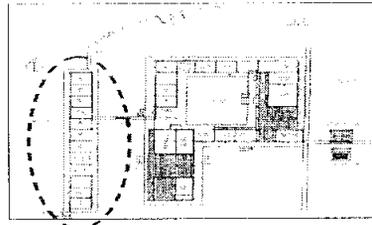
[그림37] 39)사당채 배치도

(4) 행랑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의 경우에는 안채와 사랑채 외에도 하인들이 기거하거나 곡식 등을 저장해두는 창고로서 쓰였던 행랑채가 따로 있었다.



[그림38] 40) 행랑채



[그림39] 41) 행랑채 배치도

(5) 별당채

별당이 집의 뒤, 안채의 뒤쪽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르게 불려졌다.

결혼 전의 딸들이 기거하는 별당은 ‘초당’으로, 결혼 전의 남자 아

38) <http://web.edunet4u.net/~hanok/2/2.htm>

39) 신영훈, 한옥의 향기, 대원사. 2000. p.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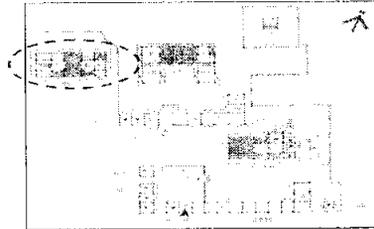
40) <http://web.edunet4u.net/~hanok/3/3.htm>

41) 신영훈, 한옥의 향기, 대원사. 2000. p.127

이들의 글공부를 위해 ‘서당’ 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집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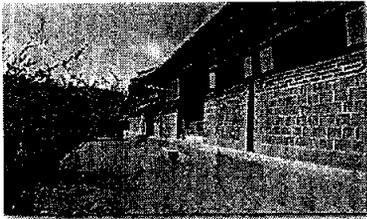
[그림40] 42) 별당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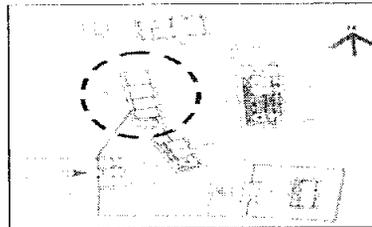
[그림41] 43) 별당채 배치도

(6) 공간채

중상류층의 주택 중에서도 부유한 집안은 수십칸 규모의 주택에서 살았다. 이들 ‘칸’ 수가 많은 전통주택에는 공간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오래 저장해 두어야 할 음식이나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저장, 보관하였다.



[그림42] 공간채44)



[그림43]45)공간채 배치도

4. 기능적 분류

(1) 대청

안채의 안방과 건넌방, 사랑채의 사랑큰방 앞의 넓은 마루를 ‘대

42) <http://web.edunet4u.net/~hanok/3/3.htm>

43) 신영훈, 한옥의 향기, 대원사. 2000. p.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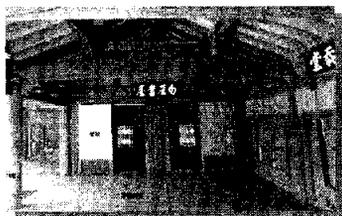
44) <http://web.edunet4u.net/~hanok/3/3.htm>

45) 신영훈, 한옥의 향기, 대원사. 2000. p.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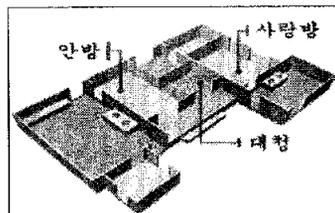
청' 이라 칭한다. 대청은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위치하여 집의 중심부에 있었다. 대청은 일반 여염집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관아에서는 청치를 하던 곳이어서 주택 내에서 가장 신성하고 근엄한 장소로 여겨졌다. 대청의 앞쪽에는 일반적으로 문을 달지 않았으며, 다는 경우에는 들문을 만들어, 더운 여름에는 이 문을 들어 올려 천장에 들쇠로 매달아 공기의 소통을 원활히 하였다. 대청 뒷문은 쌍여닫이식 판자문으로 만들어, 여름철에는 앞·뒷문을 모두 열어 놓으면 집안에서 가장 시원한 공간이 되었다. 여름철에 분합문을 서까래 밑에 내려진 들쇠에 걸어 올려놓으면 열린 공간으로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며 겨울철에는 분합문을 닫아 한기를 막고 대청공간을 아늑한 실내공간으로 만들었다. 이곳에도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대나무 발을 드리웠고, 댓돌을 밟고 오르내릴 때에 붙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 끈을 천장에 매달기도 하였다.

상류 주택에서는 원래 대청에 아무런 가구도 놓지 않고 넓게 비워두는 것이 상례이었으나, 찬방이 따로 없는 서민 주택에서는 찬장이거나 뒤주, 용충무늬 향아리 등을 대청에 놓고 사용하였다.

대청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현명하게 고안한 가옥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전면 또는 사방이 트여 있어 엄밀히 말하면 실내라고 할 수 없다.



[그림44] 대청⁴⁶⁾



[그림45] 47) 방의 구조

(2)방

전통주택에서 방은 열린 공간인 대청과 반대되는 폐쇄적인 의미를 지닌 개인적인 공간이다.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전통가옥에서의 방은 잠을 잘 때는 침대대신 따뜻한 구들 방바닥 위에 이부자리를 펴고 자고 낮에는 의자대신 방석에 앉아 지내는 좌식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공간이다.

① 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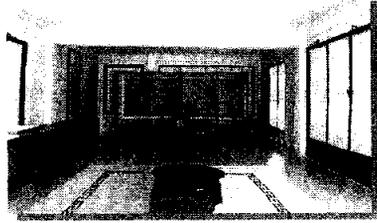
안방의 꾸밈은 아랫목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아랫목에는 보료를 깔고 주부가 앉았으며, 사방침이나 장침을 놓아 팔을 고일 수 있게 하였다. 보료 앞에는 반질고리에 자, 가위, 실 등의 바느질 도구를 담아 놓고, 그 옆에는 화로에 인두를 꽂아 두고 사용하였다. 아랫목의 벽에는 다락이 있는데, 다락에는 계절용품, 귀중품 등을 수납하고, 다락문은 네짝 미세기문으로 만들고, 그 위에는 화조를 붙여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였다.

안방의 한쪽 벽에는 키가 낮은 문갑과 버선을 넣어 두는 자그마한 머리장을 두었고, 문갑 위에는 경대나 화분 등을 얹어 두었다. 윗목에는 사방탁자를 놓아 도자기나 장식물을 얹어 두고 감상하였으며, 그 앞에는 손님용 방석도 놓았다. 또, 상류 주택에서는 윗목에 붙여서 작은 방을 만들어 ‘윗방’이라 하고, 여기에 수납용 가구인 이불장, 옷장, 농, 의거리장 등 부피가 큰 가구들을 두었으며, 이러한 가구들의 위에는 함이나 궤를 얹어 두고 윗방의 문은 열어 둔 채로 생활하였다. 병풍은 보료 주위에 치거나, 거울의 외풍을 막기 위해 창

46) <http://www.cwyh-e.es.kr/project/anything/6136kgy/html/300.htm>

47) <http://web.edunet4u.net/~hanok/3/3.htm>

가에 치기도 하였다. 안방에서 사용되던 병풍에는 여성적인 취향의 화조 무늬가 즐겨 사용되었다.



[그림46] 48) 안방

② 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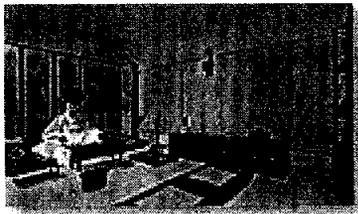
보통 사랑대청과 사랑방으로 이루어진 사랑방은 집안의 가장인 남자 어른이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방으로 남자들의 공간이다. 사랑방은 외부로부터 온 손님들에게 숙식을 대접하는 장소로 쓰이거나 이웃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집안 어른이 어린 자녀들에게 학문과 교양을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사랑방의 꾸밈은 간결하고 소박하였다. 문방가구와 취미 생활을 위한 가구들만을 두었다.

사랑방의 실내 구성과 마감재는 안방과 같았다. 사랑방의 아랫목 쪽에는 안방과는 달리 다락이 없으므로 아랫목 벽면에 다락문 대신 병풍을 둘러놓았다. 사랑방에서 이용되던 병풍에는 산수도를 그리거나 좋은 문장을 붓글씨로 써서 사용하였다. 병풍 앞에는 보료를 깔고, 그 중심 부분에는 앉아서 등을 받칠 수 있는 안석(安席)을 놓고, 그 좌우에 사방침과 장침을 놓아 팔을 고이거나 기댈 수 있게 하였다. 아랫목 구석에는 촛대와 담배 도구들을 두고 사용하였다. 보료의 정면에는 책을 얹어 놓고 읽기 편하도록 서안을 배치하고, 그 옆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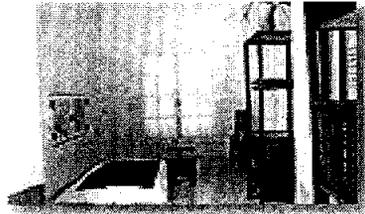
48) <http://my.dreamwiz.com/insuk1/hanok3.html>

는 종이, 벼루, 먹, 붓 등을 담아 두는 연상을 두었다.

주인의 맞은편 자리인 윗목에는 손님을 위한 방석을 몇 개 배치하였다. 창호지를 바른 창문이 있는 벽면에는 키가 낮은 문갑을 창 밑에 배치하고, 그 내부에 귀중품을 수납하였으며, 위에는 붓통이나 장식물을 얹어 두었다. 윗목의 한쪽 구석에는 사방에서 투시되는 사방탁자를 두고, 칸마다 보기 좋은 도자기나 장식물을 얹어 두었다. 벽면에는 액자나 족자, 고비(考備)를 걸어 두고 고비에는 두루마리로 된 서화나 편지 등을 끼워 보관하였다.



[그림47] 49) 사랑방



[그림47-1] 50) 사랑방

(3) 부엌

조선 시대의 상류층에서는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부엌은 대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와 잦은 제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으며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였다.

불을 지펴서 각종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인 부엌은 주로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에 안방과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였으나 일부 대가들의 집에는 반딧간이라 하여 별채로 독립시키기도 하였다.

부엌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 안방과 건넌방에 각각 위치하는데 안방

49) <http://web.edunet4u.net/~hanok/2/2.htm>

50) <http://my.dreamwiz.com/insuk1/hanok3.html>

과 접한 부엌이 주된 조리 공간이었으며 건넌방 쪽은 물을 데우는데 쓰이는 등 보조적인 공간으로 이용되었고 작업 동선을 고려해볼 때 매우 불편한 구조를 지녔다. 부엌 바닥을 일반적으로 방바닥보다 75-90cm정도 낮게 하여 아궁이에서 댄 불길을 방고래로 빨아들이도록 되어 있는 ‘온돌구조’ 때문이다.

부엌에는 2-4개의 아궁이가 있었으며 불을 때는 아궁이위 부뚜막에는 솔을 걸어두었다. 아궁이는 안방과 면한 벽쪽에 설치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면서 동시에 방을 데우도록 하였다.

부엌 내부에는 안방 쪽에 붙은 부뚜막이 있고, 반대쪽에 찬장을 배치하고 조리를 할 수 있는 작업 선반이 있었다. 부뚜막이 낮기 때문에 여인들은 구부린 자세로 일을 하였고, 상·하수 시설이 없어서 마당에서 우물물을 길어다 쓰고 마당까지 나가서 물을 버리도록 되어 있었다. 부엌문은 대문과 같은 형태의 나무문을 달았고, 문의 위쪽에는 살창을 만들어 나무를 땄 때나는 연기가 배출되도록 하였다. 부엌과 찬방 사이에는 문이 없었으며, 바닥을 높게 하고 마루나 온돌로 만들어 신을 벗고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림48] 51)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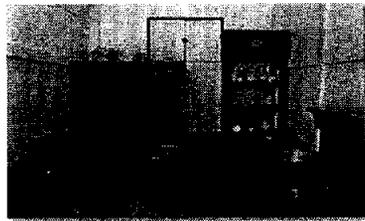
(4) 찬방

찬방 또는 찬마루라고 불리는 이곳은 오늘날의 주택의 부엌방과 다

51) <http://www.housingit.com>

용도실 정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반가나 중, 상류 지방의 가옥에서 볼 수 있는 부엌과 인접한 공간이다.

부엌과는 문으로 연결되어 있어 부엌에서 조리된 음식을 이곳에서 상에 올려 안방, 사랑방 등으로 내갔으며 간단한 음식은 이곳에서 조리하였다. 이곳에는 상을 차리는 데 필요한 그릇, 식기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음식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도 쓰였다.



[그림50] 52) 찬방

3-3-4. 전통 가옥의 구조에 관한 실습

전통 가옥의 평면도를 참고로 하여 평면도를 그리고, 실내 입면도를 그리는 실습을 한다.

실습번호 3-3-1 전통가옥 평면도, 입면도 그리기

(실습시간 6시간)

[실습 목표]

(1) 전통가옥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52) <http://www.housingit.com>

(2) 전통가옥의 평면도, 입면도를 제도하는 능력을 기른다.

[준비물]

제도대, 트레이싱 페이퍼(A²), T자, 삼각자 세트, 삼각 스케일, 제도 연필, 연필심, 지우개, 지우개판, 마스킹 테이프, 솔비

[유의 사항]

- (1) 앞에 제시한 전통가옥의 평면도를 참고하여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실습을 진행한다.
- (2) 주택의 전체 면적을 먼저 그린 후, 필요한 공간들의 면적을 분할하도록 한다.

[실습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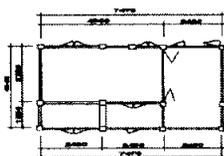
- (1) 다음 단원에 제시한 전통가옥의 평면도를 참고하여 그린다.
- (2) 주택의 전체 면적을 먼저 그린 후, 필요한 공간들의 면적을 분할하도록 한다.
- (3) 앞에서 배운 제도 방법과 순서를 복습하면서 주거 공간의 평면도를 축척 1/50로 그린다.
- (4)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을 그리고 방의 명칭을 기입하여 평면도를 완성한다.

[평가]

- (1) 평면도 입면도를 잘 이해했는가?
- (2) 치수에 맞게 그렸는가?

(3)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을 바르게 표시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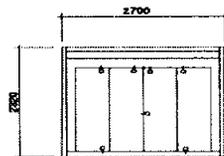
< 안방, 사랑방의 평면도, 입면도 완성 예시작품 >



[그림 50] 안방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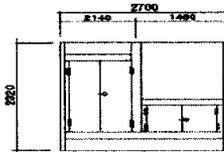
[그림50-1]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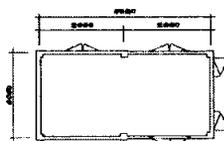
[그림50-2] 동측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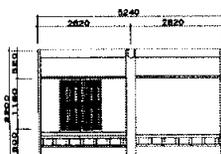
[그림50-3]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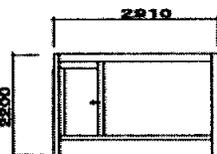
[그림50-4]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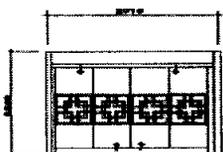
[그림 51] 사랑방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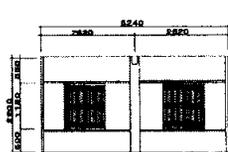
[그림 51-1] 북측입면도



[그림51-2]서측입면도



[그림51-3]동측입면도



[그림51-4]남측입면도

3-3-5. 전통가옥의 재료(실내 마감 재료)에 관한 이론

1. 바닥

전통주택에 있어서 바닥을 구성하는 방법은 크게 흙바닥, 온돌바닥, 마루바닥으로 분류된다. 이 중 흙바닥은 선사시대의 주거에서부터 사용된 바닥처리 방법으로 조선시대에는 부엌이나 광, 또는 외양간의 바닥 등에 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빈천한 계층의 경우에는 온돌방에 있어서도 흙바닥에 대자리·삿자리·갈자리 등을 깔고 기거하였다.⁵³⁾

(1) 온돌

온돌은 일찍이 고구려의 서민들로부터 보급된 실내 난방법으로⁵⁴⁾ 방바닥 밑으로 열기를 통하게 하여 판석(구들장)을 덮게 하면 그 표면의 열이 인체나 실내를 데우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온돌은 13세기경에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구들 위를 마감하는 방법에는 장판지 마감, 천마감, 솔방울 마감 등이 있다.

①장판지 마감

장판지 마감은 조선시대의 안방·건넌방·사랑방 등 일상 사람들이 거처하는 온돌구조를 한 실내에 사용되었다. 온돌바닥은 구들 위에 점토를 발라 방바닥 면을 고르게 한 다음 그 위에 초배지로 초배를 한다. 초배지는 장판지 밑에 먼저 발라서 장판지 면이 고르고 산뜻하게 마무리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보통 창호지 중 저급품을

53) 홍진경, 한국 전통주택의 실내마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8.

54) 주남철, 이조시대 서울의 주택(향토서울), 1965. p.94~95.

많이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품질이 좋은 두꺼운 장판지로 도배하면 온돌마감이 깨끗하게 된다.

온돌마감이 끝나면 길들이기를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은 콩땀을 한 위에 콩기름이나 들기름을 먹여 장판지에 윤이 나게 하는 것으로, 이때 색조를 일정하게 내기 위하여 치자물을 콩땀에 섞어 장판지에 골고루 문지르면 아름다운 황갈색의 색조를 띠게 한다. 이와 같은 치장은 장판지에 내수성을 갖게 하는 이중 효과도 가져온다. 이처럼 치장하여 노르스름한 장판지가 깔린 방바닥은 난색으로써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흰색의 벽으로 쓸쓸한 느낌이 드는 온돌방을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꿔주었다.⁵⁵⁾ 또한 장판지 마감은 특별한 의장은 없으나 일정한 크기의 장판지를 바르기 때문에 마감 후에는 장판지가 겹쳐 들어가는 부분이 약간 도드라지고, 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방형의 띠를 형성하게 되며 겹배지로 만들어지므로 장판지 자체에 은은하고 독특한 붓자국이 나타난다.⁵⁶⁾

② 천마감

상류계층의 실내 중에서도 다소 호사스러운 실내인 경우에는 장판지 대신에 비단을 바르기도 하였는데 이를 천마감이라 한다. 초배지 위에 은은한 색조의 갖가지 무늬를 수놓은 우아한 비단을 바르고, 여기에 투명한 기름으로 절여 피막을 만들면 표면을 보호하고 미관상 광택이 나는 이중효과를 가져온다.⁵⁷⁾

55)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p.167.

56)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97, p.146.

57)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1983, p.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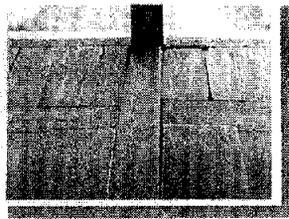
천마감은 종이 장판지보다 실용적이지는 않았으나 독특한 재질감에서 오는 화려하고 호사스러워 보이는 효과로 인해 사치스러운 실내 마감으로 사용되었다.

(2) 마루바닥

마루를 깐 방을 마루방이라 하며, 특히 안방과 건넌방 사이나 사랑방 옆 등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실을 대청이라 하였다. 대청은 온돌방으로 드나드는 전실과 같은 역할을 하였고 또 여름에 주로 거처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마루바닥의 구성은 우물마루, 장마루, 쪽마루 등으로 구분된다.

① 우물마루

우물마루는 상류계급에서부터 서민계층의 주택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어 대청바닥 마감 재료로 일반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물마루는 대청이나 곳간에 사용된 구조를 말하며 귀틀과 청판으로 구성된다.



[그림 52] 58)귀틀

② 장마루

장마루는 주로 뒷마루나 광, 다락바닥 등에 축조했던 것으로 우물마루보다 열등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는 좁고 긴 널판을 나란히 붙여 깐 것으로 평행한 선들이 많이 나타나고 중간 중간에 직각

58) 신영훈, 한옥의 향기, 대원사, 2000. p.126

의 이음선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에는 일반 마루구조가 되어 오히려 우물마루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③ 쪽마루

쪽마루는 짧고 좁은 마루널 네 개를 모아 정방형의 한 장 마루판이 되게 하고 이들을 서로 엇갈리게 깔아 바닥전체에 쪽 무늬를 형성하는 마루로, 조선시대 전통적인 주택에서는 거의 사용된 예가 없다. 그러나 안동 이씨 주택에서 아(亞)자형으로 마루가 깔린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아주 고급 주택에서 간혹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극히 드문 예로 마루널을 완자형으로 배치하여 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주택에서 시공된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궁궐과 같은 특수한 건물에서 나타나는 아주 희귀한 형태이다.

2. 벽

한국 전통주택의 벽체는 정면의 대부분이 창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국 벽체 형성부위는 건물의 측면과 배면으로 한정된다. 실내의 벽면은 토벽, 분(粉)벽, 벽지마감 등으로 분류되는데, 토벽은 주로 부엌공간과 서민주택 중에도 빈번한 주택에 사용되었고, 상류주택 실내공간의 벽은 주로 분벽과 벽지마감으로 구성된다.

(1)분(粉)벽

분벽은 전통주택의 내외벽에 강회(剛灰)를 분회(粉灰)로 만들어 덧바르는 방법이다. 전통주택의 대청 내벽에는 흰 회벽으로 마감되어 마루와는 강한 명암 대비를 이루고 연등천장에서는 서까래와 회분의 아기자기한 구조미를 보여 전체적으로 활기있는 공간을 형성한다.

생석회 덩어리인 강회를 분회로 만들고 이것을 다시 삼화토⁵⁹⁾로 벽

체에 치장하면 백자 빛의 하얀 분이 오르는데, 하얀 회벽체는 구조체를 이루는 목재의 검은 색채와 강한 대비를 이루며 장식미를 더해준다. 또한 형태와 색조의 대비뿐만이 아니라 재질감에서도 구조체인 목재의 거칠고 투박한 질감은 회벽의 매끄럽고 얇은 재질과는 강한 대비를 이룸으로써 한층 더 아름다운 구조미를 창출하였다.

삼국시대부터 분벽하는 일은 고급스러운 일이어서 신분에 제한을 두었고 형편이 넉넉하거나 벼슬이 높은 집에서 주로 사용하였는데, 분벽을 할 수 없는 신분의 사람들 중 분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림 백토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2)벽지마감

장판지 마감이 이루어진 실의 사방벽은 반드시 벽지마감으로 처리된다. 대청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회벽으로 마감되지만 간혹 벽지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실질적으로 방의 내부는 벽의 균열과 방풍을 고려하여 벽체를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실질적으로 방의 내부는 벽의 균열과 방풍을 고려하여 벽체를 종이로 마감하게 되는데, 벽지마감은 방의 진실 역할을 해주는 마루공간이 선으로 이루어진 동적인 공간인 반면, 안쪽 온돌방은 면으로 구성되는 정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큰 대조를 이루게 한다.

벽체의 도배는 보통 세겘으로 하는데 우선 토벽에 진한 풀을 먹여 초배지를 바른 후, 다시 사전지를 바른다. 이는 마지막 공정인 벽지가 매끈하고 미려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중배지가 다 마른 후 벽지를 바르게 된다. 마전하고 도련하여 상아색으로 맑고 윤기있는 장지를 바르기도 하였다.

59) 삼화토=분회, 백토, 고운 모래를 1:1:1의 비로 배합한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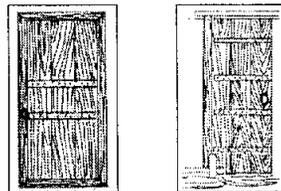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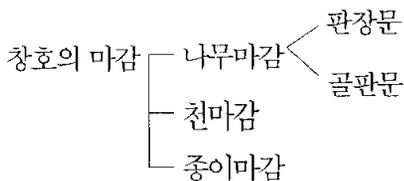
조선시대의 벽지는 화려하지 않은 닥지를 사용하고 그 색은 백자와 마찬가지로 대황색이나 상아색·대회색의 색감을 지닌 것들로써 청초하고 단아한 느낌의 것들이다.

상류주택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고급벽지가 사용되기도 했고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로 전주산 간장지·남원산 익지·영변산 백로지·평강산 설화지 등이 사용되기도 했다.

벽지의 선택에 있어서 전통주택의 특징인 여성공간과 남성공간이 다르게 치장되기도 하였는데, 여성공간인 안방은 나염하거나 목판으로 찍은 색조있는 무늬벽지를 사용하고 남성공간인 사랑방은 담백한 한지색 그대로의 벽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상류주택에서는 명주를 벽지대신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창호

창호는 기본적인 용도로서 출입과 채광, 그리고 통풍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지만 일단 설치된 후에는 주택의 장식을 위한 용도로 더욱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였다. 창호는 창과 호의 합성어로서, 창은 빛을 받아들이고 조망할 수 있는 것이며, 호(戶)는 일반적으로 외쪽 문을 일컫는 것이다. 창호의 마감으로는 나무마감, 천마감, 종이마감이 있다. 나무마감은 판장문이나 골판문에 사용되며, 나무결이 고운 나무를 구하여 좌우의 무늬가 대칭이 되도록 조화롭게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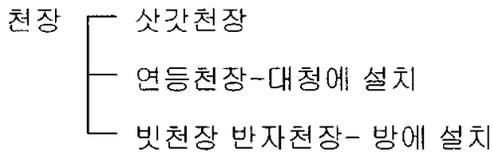


[그림53] 60) 판장문 골판문

모든 창호에는 대부분 종이마감인 창호지를 바르게 되는데, 호지법은 일본과 중국이 창호바깥으로 종이를 붙이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안쪽에 종이를 붙여 온돌방의 면적인 구성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창호지는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하여 개발한 흰빛의 특수한 종지로 해맑은 빛과 통풍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창호지를 바르면 실내의 소리울림을 줄이고 급변하는 외기도 막아준다. 종이를 바르는 방법에 따라 투명하게도 되고 불투명하게도 되는데, 빛이 통과하는 경우를 명장지라고 부른다.

4. 천장

천장은 구조에 따라 서까래가 드러나 보이도록 노출시켜 두는 연등천장과 가구와 서까래가 숨도록 어떤 시설을 하는 반자천장이 있다.



1) 구성에 따른 분류

천장은 또 그 구성에 따라 삿갓천장·연등천장·빗천장·반자천장 등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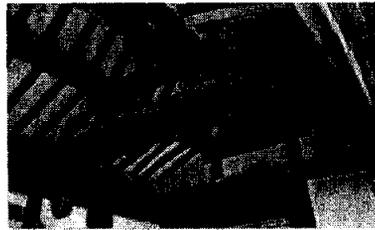
① 삿갓천장

삿갓천장은 초가 등의 주고(柱高)가 낮은 서민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천장으로, 가운데가 높고 가장자리가 낮아서 경사진 천장을 말한다.

60)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2001, p.91

② 연등천장

연등천장은 전통주택의 마루나 부엌, 광 등에서 축조되는 천장으로 고대부터 가장 많이 이용해 오고 있는 천장구조이다. 이 천장은 서까래가 실내에 노출되며 서까래 사이에 보통 양토를 하고 분벽인 흰 회벽으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서까래에서 나타나는 재질감 및 색채와 흰 분벽은 독특한 구조미를 이룬다.



[그림 54]⁶¹⁾ 연등천장

③ 빗천장

빗천장은 지붕이 오랑이거나 그 이상일 때, 주도리와 중도리 사이의 천장을 서까래와 평행되는 경사도로 널빤지를 사용해서 마감한 것으로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채색이나 시문을 함으로써 아름답게 치장을 하였다. 전통주택에서는 초정이나 누사의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⁶²⁾

2) 반자

반자는 일정한 높이에 수평으로 가로, 세로의 틀을 설치하여 이것을 지붕 아래에 매다는 구조로서, 종이반자·평반자·고미반자·우물반자·빗반자 등이 있다.

61)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실내디자인, 2003, p.13.

62) 신영훈, 전계서, 1996, p.315



① 종이반자

종이반자는 전통주택의 온돌방에 많이 구성되는 천장으로 지붕의 구조물을 가리고 각방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난방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많이 설치된다. 일정한 높이에 수평을 올거미(반자틀)를 만들어 그 위에 종이를 발라 구성한 수, 벽의 벽지와 거의 같은 종류인 흰색류의 천장지를 붙인다. 후에 천장지로 약채도·고명도의 화문지를 바르거나 단색의 색지도 이용하였는데, 주로 사용된 색상으로는 청색·녹색·오색의 천장지나 황칠한 황지를 붙이기도 하였다.

조선조 후기에 들어서는 반자지의 색이 분홍바탕에 연한 녹색무늬, 맑은 파랑에 금분 혹은 은분무늬를 그린 화려한 것도 있고 같은 분홍이라도 색조차를 달리 무늬를 낸 반자지를 사용하였다.⁶³⁾

② 평반자

평반자는 금정틀처럼 올거미를 짜 수평으로 설치하고 장마루를 짜듯이 널빤지나 반으로 쪼갠 나무를 써서 건너지르는 것으로, 나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것과 양토를 짜 바르는 것이 있으며 종이를 발라 도배하기도 한다.

③ 고미반자

고미반자는 고미혀라 부르는 각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63) 홍진경, 전계서, p.86

‘병에’를 걸고 고미혀 사이의 공간을 가로지른 널빤지나 나무에 산자를 얹고 흠을 바른 것을 지칭한다. 이런 반자에는 선비들이 먹이나 담채로 태극이나 팔괘, 오행을 나타내는 무늬들을 그려 넣어 일상 주변에서 삼라만상의 조화를 익히도록 했다.

④ 우물반자

우물반자는 반자 중 가장 고급에 속하는 것으로 바둑판 같은 광정을 계속시켜 반듯하게 짜고 온돌방인 경우에는 종이를 바른다. 일반적으로 대청인 경우에는 반자를 우물에 네모반듯한 청판을 끼워 마감한다. 상류주택에서 사랑채 대청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합각 및 선자서까래가 모이는 곳에 있게 되면 구조재나 끝마부리가 보기에 좋지 못하므로 구조재를 가리기 위해 우물천장을 가설하기도 한다.⁶⁴⁾

⑤ 장반자

장반자는 반자들에 긴 널을 댄 것으로, 부엌의 상부를 다락으로 꾸미는 경우에는 자연히 부엌천장이 마루바닥이 되므로 다락이 장마루로 꾸며지고 부엌쪽에서는 장반자가 된다.⁶⁵⁾

⑥ 빗반자

빗반자는 천장면을 경사지게 처리한 양식으로 단독으로 설치되지 않고 수평으로 처리된 우물반자와 혼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빗반자는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백제 시대에서부터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목조건축에서는 빗반자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없으며 우물반자와 함께 가설되었다.⁶⁶⁾

64) 주남철, 한국의 주택건축, 1997, p.209.

65) 주남철, 전계서, 1997, p.195.

[표 17] 전통주거의 실내마감표

구분	각실	바닥	벽	천장
상·중류 층주택	안방	· 장판지 마감 · 황갈색의 장판지에 콩담이나 술방울 마감	· 벽지마감 · 대부분 백색 벽지 · 후기:낮은채도의 벽지 · 영·정조시대:능화지	· 반자지 마감 · 초기 : 백색 · 후기 : 저채초·고명도의 화문지 분홍바탕에 녹색무늬 연한파랑에 금분·은분무늬 분홍과 녹색의 색조 차문양
	대청	· 우물마루 · 아자형 마루 · 나무위에 주토를 칠하거나 콩담	· 벽지마감 · 회반죽마감 · 창호지 마감 · 안방과 건넌방사이 : 불발기 · 앞마당쪽 :분합문 · 뒷마당쪽 :쌍여달이	· 연등천장 · 소나무 환목을 꺾질만 벗긴 나무결이 드러나 서까래와 흰색의 회반죽 마감
	부엌	· 흙바닥 마감 · 찬간 : 마루	· 토벽 · 삼면이 문 · 앞·뒷마당쪽:관장문 · 안방쪽 :외짜지게문 또는 미달이문	· 연등천장 · 상천장
	사랑방	· 장판지 마감 · 황갈색의 장판지 에 콩담이나 술방울 마감	· 벽지마감 · 대부분 백색 벽지	· 반자지 마감 · 초기 : 백색 · 후기 : 색지 (청색, 녹색, 오색, 황색)
서민 주택	안방	· 장판지 마감	· 벽지마감	· 종이반자
	마루	· 우물마루	· 벽지마감	· 연등천장 · 회반죽
	부엌	· 흙바닥	· 회반죽	· 회반죽
	사랑방	· 장판지	· 종이마감	· 종이마감

66) 주남철, 전계서, 1997, p.152.

3-3-6. 전통가옥의 재료에 대한 실습

전통가옥의 평면도, 입면도를 참고로 하여 평면도와 입면도를 놓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전통가옥의 공간 재료 계획을 실습한다.

실습번호 3-3-2 한국 전통가옥의 실내 공간을 위한 재료계획하기
(실습시간 4시간)

[실습 목표]

- (1) 한국 전통 실내 디자인의 특성을 이해한다.
- (2) 한국 전통가옥의 실내 공간을 위한 재료 계획의 능력을 기른다.

[준비물]

한국 전통가옥의 평면도·입면도, 가구, 장식품 등의 사진,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재료의 샘플, 흰색 하드보드(400×300 또는 500×400), 양면 테이프 또는 풀, 공업용 본드 등의 접착제

[유의 사항]

- (1) 수집한 사진의 재료와 색채의 특성을 분석할 때에는 [표 17] 과 같이 분석한다.

[표 18] 부분별 재료와 색채의 선택

	바닥	벽	천장	문	창문
재료	장판지	벽지	반자지	나무	창호지
색채	흰색 검정색 청록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 (2) 샘플을 하드보드 위에 붙일 때에는 샘플에 무게에 따라 적합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직물과 같은 가벼운 재료는 양면 테이프로 붙일 수 있으며, 무거운 재료인 석재나 타일 종류 등은 공업용 본드로 접착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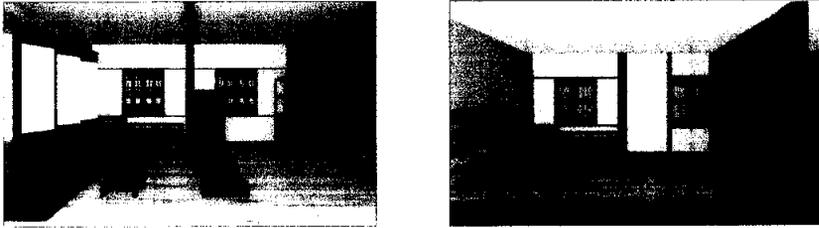
[실습순서]

- (1) 한국 전통가옥의 실내 공간과 가구, 장식물 등의 사진을 잡지나 달력 또는 한국 관광 홍보용 책자,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다.
전통과 현대의 절충 양식으로 디자인된 실내 공간이나 가구 등도 무방하다. 단, 현대의 이미지보다는 전통적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 (2) 수집한 한국 전통 실내 공간의 사진 중 하나 또는 두 개를 선택하고 그 재료와 색채의 특성을 분석한다.
- (3)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재료의 샘플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수집한다.
- (4) 수집한 재료를 실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에 따라 잘라놓는다.
- (5) 주어진 흰색 하드보드 위에 선정한 사진을 올려놓고 그 옆에 준비한 재료를 서로 겹치거나 적절히 조화되도록 구성하여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 (6) 제목이나 재료의 이름을 표기하고 마무리한다.

[평가]

- (1) 선정한 사진과 이를 나타내고 있는 재료는 한국 전통 이미지의 특징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가?

- (2) 선정된 재료는 색채나 질감면에서 조화되고 있는가?
 (3) 완성된 결과물이 빈틈없이 깔끔하게 처리되었는가?



[그림55] 재료계획 완성예시 작품

3-3-7. 전통 가옥의 가구에 관한 이론

조선 시대는 유교가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일상생활 및 의식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조선 초기(1400-1600)의 가구는 그 시대의 인문 사회적 요구와 특성을 충족시키면서 소유자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소유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조선 중기(1600-1850)에는 왕실, 사대부가 등의 일부 특권층뿐만 아니라 일부 상인을 중심으로 한 평민들도 양반을 동경하고 부를 과시하고자 홍장·용장·봉장을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가구가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도구가 되었다.

조선 시대의 가구는 좌식 생활에 따른 행동반경에 따라 가구의 치수가 정해졌다. 또한, 절제된 선과 나무 자체의 무늬결을 최대한 살려 자연적인 이미지와 여백의미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조선 시대 건축물 내부의 규모와 비례, 구조적 특징, 마감 재료와 상관관계

가 있다. 생활공간이 남성 공간과 여성 공간으로 구분됨에 따라 가구도 안방 가구, 사랑방 가구, 부엌 가구로 공간에 따라 용도와 특성이 구분되었다.

[표 19] 가구의 종류

구분	가 구
안 방	장(옷장, 의거리장, 버선장, 이불장), 농, 반닫이, 빗집·좌경, 가계수리, 함과 례, 례상, 탁자, 문갑, 헛대, 화로, 병풍, 발 및 돛자리
사랑방	장(의거리장, 책장), 탁자, 서안, 연상, 평상, 퇴침, 고비, 발, 병풍
부 엷	찬장, 뒤주, 소반

1. 안방 가구

안방은 여성의 공간으로 가족들의 사계절 옷과 생활 용품을 넣는 장, 농, 반닫이 등의 수납장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 곳에는 몸단장을 위한 좌경과 빗집, 귀중품을 넣는 각계수리 등이 놓여졌다. 안방 가구는 다산, 장수,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자개난 상감 기법으로 장식하여 우아하고 섬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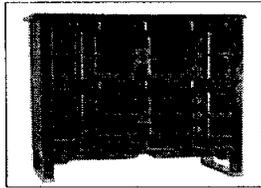
(1) 장

장은 조선시대 주택전반에 걸쳐 가장 많이 사용된 대표적 수납가구이다. 장은 긴 한 장의 판재로 측널이 구성되어 있어 각층이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단층장에서 오층장까지 다양한 형태이다. 장은 맨 윗부분인 개판, 가운데 부분인 몸체, 아랫부분인 다리로 구성되어 있다. 여닫이로 된 분이 각 층마다 달려있고 내부에는 층마다 저고리, 치마 등 부인들의 옷을 접어 넣을 수 있도록 빈 공간으로 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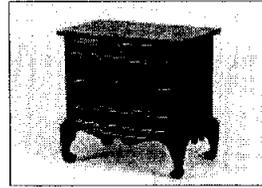
다. 측널은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두꺼운 판재로 이루어지며 몸체를 구성하는 네 기둥에는 굵고 튼튼한 재료가 사용되었다. 장의 주재료에는 목재였으며, 대나무, 종이, 비단, 자개, 화각 등을 치장재로 사용하였다.

단층장은 모두 머리맡에 두고 귀중품이나 열쇠뭉치 등을 넣어두므로 머릿장이라고 부른다. 겉에는 옷칠로 도장을 하고 안에 다홍색 종이를 주로 바른다.

의걸이는 장의 이층부분을 아래층보다 크게 만들어 옷을 걸도록 시설한 것으로 종래의 재래식 장이 옷을 개어 쌓는 형식임에 비하여 의걸이는 세워서 건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런 의걸이의 형태를 그대로 응용한 것이 금침장(이불장)이다.



[그림56]⁶⁷⁾ 이층장



[그림57]⁶⁸⁾머릿장

[표 20] 장의 종류

구분	종류	비고
층 수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 사층장, 오층장	단층장 -머릿장이라 부름
용도	의걸이장, 실장, 버선장, 이불장, 솜장 등	
문양	원앙삼층장, 나비삼층장	
치장재	지장, 비단장, 화각장, 죽장, 자개장, 용목장, 화류장, 먹감나무장, 화초장 등	용목장, 화초장 -상류층만 사용

67)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가구디자인, 2003,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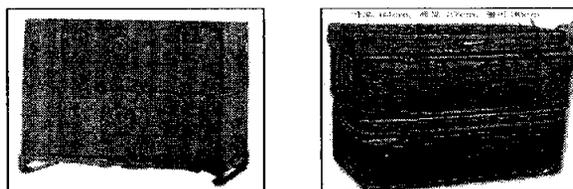
68) 국립 민속 박물관(서울 특별시)<http://www.nfm.go.kr>

(2) 농

농은 한국 전래의 고리에서 발전된 판재구성의 의복수장구로 장과 더불어 안방가구의 기본이 되며, 앞에 문이 달려 있는 같은 크기의 상자를 이층 또는 삼층으로 포개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구이다. 농은 안의 내용물은 그대로 둔 채 계절에 따라 위쪽, 아래쪽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어 있다.

농의 외관은 장과 비슷해 보이나 층층이 떨어진다라는 점이 다르며, 다리도 몸체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떼어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농에는 각 층을 분리하기 편리하도록 옆면에 손잡이 고리가 달려 있다. 장과 마찬가지로 목재 이외에도 대나무, 종이, 사자리, 자개 등이 치장재로 사용되었다.

농은 장과 더불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던 수납용 가구로, 외관상 장과 비슷하나 같은 모양의 상자를 2개 또는 3개의 상자를 쌓아 놓은 형태로 몸통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장과 다른 점이다.



[그림58] 69)이층농

[표 21] 농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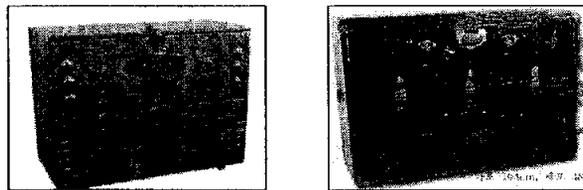
구분	종 류
재 료	자개농, 오동나무농, 먹감나무농, 버드나무농
용 도	옷농, 버섯농, 책농, 실농 등

69)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가구디자인, 2003, p.13
<http://www.kwangjufolk.go.kr/index01.html>

(3) 반닫이

반닫이는 튼튼하고 두꺼운 판재로 만든 수납가구로서, 앞널의 중심에 경첩을 달아 상반부를 문짝으로 만들어 상하로 여닫게 만들었기 때문에 ‘반닫이’라 일컬어졌다.

반닫이의 형태는 천판, 몸체, 다리로 이루어진 장방형으로 높이와 크기는 좌식생활에 적합하게 만들었다. 반닫이는 나무 결이 좋은 넓고 두꺼운 판에 큼직한 장식들이 어울려 단순하고 소박한 멋을 나타낸다. 재료로는 소나무와 잣나무 이외에도 느티나무, 느릅나무, 참죽나무와 같은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였다. 서민층에는 장이나 농을 대신하여 안방의 의복 수납가구로 사용하였으나,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책이나 귀중문서, 제기, 생활용품의 보관 등 다목적 수납가구로 사용되었다. 반닫이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사용되었으며, 반닫이의 앞면에는 화려한 금구장식을 많이 부착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반닫이는 지방에 따라서 평안도 반닫이, 경기도 반닫이, 충청도 반닫이, 전라도 반닫이, 경상도 반닫이 등으로 불렸으며, 특히 강화 반닫이는 품질이 우수하여 궁중에서도 애용되었다.



[그림59]70) 반닫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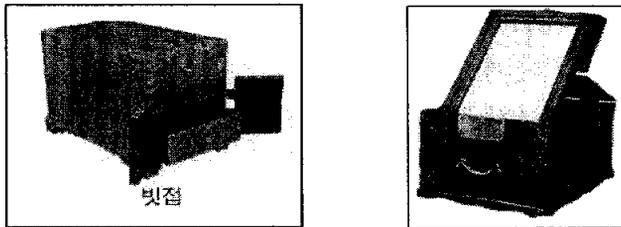
(4) 빗집, 좌경

빗집은 빗, 빗술 등을 넣어두는 것으로 예로부터 신부의 혼수품으

70)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가구디자인, 2003, p.13
<http://www.kwangjufolk.go.kr/index01.html>

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었다. 빗집을 나무로 만든 것은 소갑이라 하며, 남성용은 목침만하게 만들어 서랍을 설치하고 갑의 안팎을 옷칠하거나 오동나무에 인두로 지져서 취색한다. 여성용은 이보다 커서 서랍을 두세층으로 설치하여 위에는 머리 빗는 도구를 넣고 아래 서랍에는 분과 향택물을 넣는다.

개화문물과 더불어 유리거울이 보급되면서 소갑 뚜껑의 안쪽에 거울을 부착시키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좌경대이다. 즉 좌경은 현대의 경대와 마찬가지로인 것으로 여성이 혼인할 때 가지고 가는 가장 중요한 혼수 품목중의 하나이며 여성의 필수품이었다. 따라서 색채가 풍부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좌경은 좌식생활에 알맞도록 높이와 경사를 조절하여 화장하기 좋고, 밝고 편리한 장소로 옮겨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 두도록 만들어졌다. 좌경은 일반적으로 하단에 여닫이문이 있고 내부에는 화장도구를 넣도록 서랍이 달려 있으며 윗면 내부에는 거울을 달아 필요할 때 뚜껑을 열어 거울을 세워 쓰도록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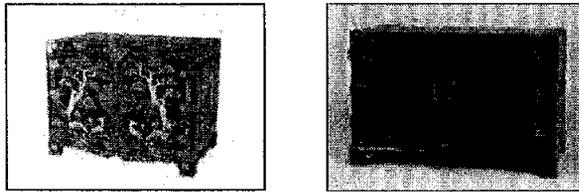
[그림60] 71)빗집, 좌경

(5) 가깨수리

가깨수리란 귀중품이나 문서 등을 넣어두는 일종의 금고로 안방과

71)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가구디자인, 2003, p.13
국립 민속 박물관(서울 특별시)<http://www.nfm.go.kr>

사랑방에서 모두 사용되었다. 가께수리는 크고 튼튼한 구조와 금구 장식, 두툼한 관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의 두 문짝을 열면 내부는 삼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가운데는 서랍이 있으며 위아래는 선반이 있거나 모두 서랍으로 된 경우도 있다. 가께수리는 중국의 각비슈리라고 하는 소형장에서 유래하였으며, 갑게수리, 각기소리, 각게수리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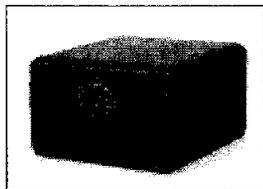


[그림61] 72)가께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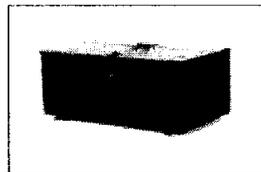
(6)함과 궤

함은 물건을 넣도록 만든 상자로, 각 가정에서 용도에 맞게 만들어 썼으므로 크기와 종류가 다양하였다. 혼수함에는 붉은색 옷칠을 하고, 앞바탕에 구름무늬 장식과 뽕침대, 하단에는 겹국화꽃 무늬를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궤는 상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경첩을 달아 반쪽만 열리게 만든 상자로, 그 용도에 따라 돈궤, 실궤, 도장궤, 잠궤 등으로 불렸다.



[그림62] 73)함



[그림 63] 74)궤

7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가구디자인, 2003, p.13

73) 국립 민속 박물관(서울 특별시)<http://www.nfm.go.kr>

[표 22] 함의 종류

용도	종류
혼수용	혼수함
안방용	의복함, 족두리함, 보석함 등
사랑방용	도장함, 문서함, 관복함 등

(7) 궤상(机床)

안방이나 사랑방에서 사용되었던 궤상은 보료 위에 앉아 팔을 기대어 몸을 편안하게 앉도록 받쳐 주는 팔받침 도구로 의침(依枕)이라고도 한다. 양면 끝은 조금 넓고 가운데는 오목한 둥근 형태가 많으며 간혹 서랍이 부착된 문갑겸용 궤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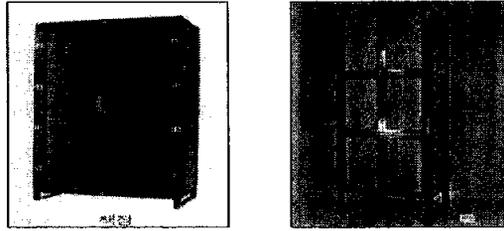
2. 사랑방 가구

사랑방은 남성의 거처로 서재와 외부 손님을 맞는 응접실의 기능이 있었으므로 서안, 책장, 문갑, 탁자류 등과 문방구를 넣거나 올려놓는 연상(硯床)등이 놓여졌다. 사랑방 가구는 무광택 처리하여 소박하고 은은한 자연미가 배어 나와 조선시대의 선비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사랑방에서 쓰이던 가구에는 의거리장, 책장, 사방탁자, 서안, 문갑, 연상, 다과상, 고비, 발, 병풍, 평상 등이 있었다.

(1) 책장

책장은 사랑방 가구의 대표적인 가구이다. 책장에는 각 층마다 문을 단 것과 전체를 두 짝의 여닫이문으로 단 것이 있었으며, 안방의 장에 비하여 장식이 적고 단순하고 책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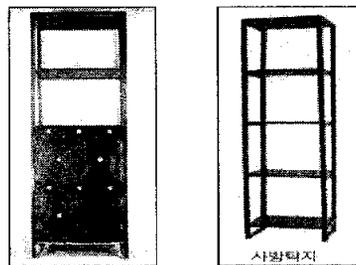
74) 국립 민속 박물관(서울 특별시)<http://www.nfm.go.kr>



[그림64] 75) 책장, 삼층책장

(2) 탁자

탁자는 문방 가구로, 조선시대 가구 중 가장 비례미가 뛰어난 가구였다. 탁자는 사방이 뚫려 있어 어느 방향에서나 시원하게 보이므로 장식물을 얹어두고 보거나, 책을 쌓아두기에 좋았다. 탁자는 기둥과 층널만으로 구성된 것도 있었으나, 보통 3층 또는 4층으로 나누어 맨 아래 한 층에는 문을 달아 물건을 수납하도록 된 것이 많았다. 이처럼 한 층이나 그 이상에 문을 단 것을 ‘탁장’이라 불렀다. 탁자는 장식이 적고 간소하면서도 건실한 구성미를 갖고 있고, 각 층 아름다운 비례 관계는 현재에도 탁월한 조형 감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림65] 76) 사방탁자

75)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가구디자인, 2003, p.13
국립 민속 박물관(서울 특별시)<http://www.nf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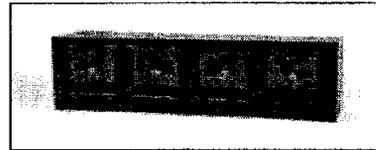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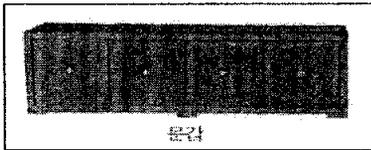
76)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가구디자인, 2003, p.13
국립 민속 박물관(서울 특별시)<http://www.nfm.go.kr>

[표 23] 탁자 구분

구분	종류
모양	2층탁자, 3층탁자, 4층탁자, 장탁자, 사방탁자, 탁장
용도	책탁자, 잔탁자

(3) 문갑

문갑은 조선시대 가구 중에서 좌식생활에 가장 적합한 가구라고 할 수 있다. 문갑은 키가 낮아 앉은 채로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서랍과 여닫이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에는 여러 가지 귀중품이나 작은 물건들을 수납하기에 적합하며, 그 위에는 장식물을 놓아두는 진열대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문갑은 안방과 사랑방에서 모두 사용하였는데, 한 짝만 놓는 외문갑과 두 짝을 놓는 쌍문갑이 있었다.



[그림66] 77)문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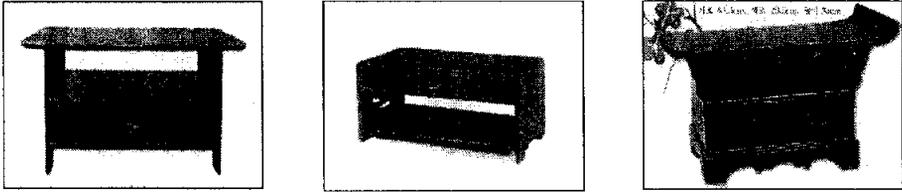
(4) 서안

서안은 책을 받쳐 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으로, 사대부 집안의 사랑방 가구로서는 필수품이었다.

[표 24] 서안의 종류

종류	모양	사용 장소
경상	두루마리형으로 곡선적인 장식	사찰→상류층 사랑방
범상	단순한 모양의 직선 형태	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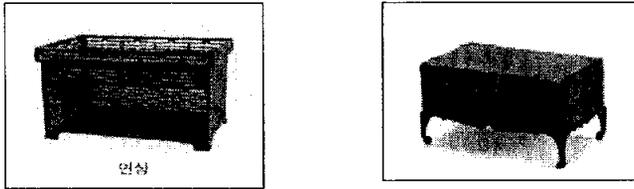
77)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가구디자인, 2003, p.13
 국립민속박물관(서울특별시) <http://www.nfm.go.kr>



[그림67] 78)서안

(5) 연상(硯床)

연상은 문방사우(文房四友)라 일컫는 벼루, 먹, 종이, 붓과 도장이나 작은 두루마리 서책을 넣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연상에는 일반적으로 뚜껑이 달려있는데, 상단에는 벼루와 먹을 하단에는 책, 종이, 연직 등을 놓게 되어 있다. 주재료는 오동나무, 소나무, 먹감나무 등이 쓰였으며, 죽재나 나전칠기로 장식된 것도 있다.



[그림 68]79)연상

(6) 평상(平床)

평상은 대청이나 누마루에 놓고 평좌로 앉거나 눕는데 사용되었던 목재침상을 말한다.

좌식 생활을 하던 서민층은 방에서 평상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상류층은 중국처럼 의자식으로, 여름의 차가운 온돌이나 겨울의 뜨거운 온돌 위에 평상을 놓고 사용하였다.

78)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가구디자인, 2003, p.13
국립 민속 박물관(서울 특별시)<http://www.nfm.go.kr>

79)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가구디자인, 2003, p.13
국립 민속 박물관(서울 특별시)<http://www.nfm.go.kr>

[표 25] 평상의 종류

종 류	모 양	사용 장소
살평상	평상의 바닥이 살로 된 것	
널평상	단순한 네다리에 널판을 붙여서 짠 것	서민들의 마당

(7) 퇴침(退枕)

퇴침은 휴식할 때 사용하는 배개로서 주로 사대부집 사랑방에서 남성들이 낮잠을 잘 때 사용하였다. 나무로 만든 목침, 대나무로 만든 죽침, 자개로 만든 나전침과 도자기로 만든 자기침 등 그 재료에 따라 형태도 다양하다. 머리가 닿는 곳은 오동나무와 같은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하고 네 귀는 쉽게 닳지 않도록 괴목 또는 참죽을 사용하였다.

(8) 고비

고비는 벽에 걸어두고, 두루마리 형태의 그림이나 편지 등을 꽂아 두는 기물로, 그 모양이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웠다.



[그림 69] 80)고비

(9) 병풍

병풍은 방풍과 장식용, 의례용으로 사용되어 평상시에는 물론, 가정의 혼례, 제례 등의 주요 행사시에는 반드시 사용되었다. 병풍은 2쪽 내지 10쪽으로 짝수를 만들고, 12쪽 이상의 병풍은 6쪽씩으로 나누

80)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실내디자인, 2003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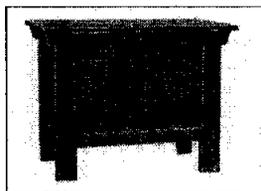
어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안방용 병풍에는 화조도를, 사랑방용 병풍에는 산수도나 좋은 문장을 수놓거나 붓으로 써서 만들었다.

3. 부엌 가구

부엌에는 장식적인 가구보다는 조리작업이나 수납을 위한 실용적인 기물만을 배치하였다. 부엌가구에는 찬장, 찬탁, 뒤주와 같은 것이 있는데, 소나무나 느티나무 등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유거나 자기로 된 식기의 무게와 곡류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소반은 장유유서 및 내외 사상에 따라 한 가정에서 따로따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들거나 이고 다니기에 알맞도록 작고 가벼운 나무로 제작하였다. 상류 주택의 부엌에는 부엌의 한쪽에 찬방을 만들고, 여기에 찬장, 찬탁, 쌀뒤주, 잡곡 뒤주, 조미료를 담아 두던 용충 무늬 항아리, 그 밖의 부엌 용구들을 두고 사용하였다.

(1) 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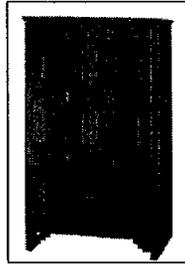
뒤주는 곡식을 넣어두는 가구로, 괴목으로 만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장식은 무쇠나 놋쇠를 썼고 찬방, 찬마루, 대청 등에 놓였다. 뒤주는 윗 널을 반으로 나누어 위로 열도록 되어 있었으며, 금구 장식은 별로 쓰지 않아 둔탁하고 소박한 느낌을 주었다. 쌀뒤주는 크기가 크고 잡곡 뒤주는 작았다.



[그림 70] 81)뒤주

(2) 찬장

찬장은 그릇이나 반찬을 수납하는 가구로 대개 2층이나 3층이며, 굽은 재목을 사용하여 둔탁하고 장식이 검소하였다. 용도에 따라서 크기가 다양하여, 작은 것은 부뚜막이나 찬마루 위에, 큰 것은 찬방에 두고 사용하였다.



[그림 71] 82)찬장

(3) 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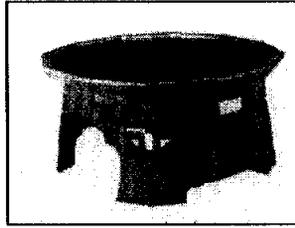
소반은 우리나라의 민예가구 중 우수한 것에 속한다. 대가족이면서도 신분별로 식사를 따로 하였던 조선시대의 생활 습관에 따라 여러 종류의 소반이 발달하였다.

[표 26] 소반의 종류

구분	종류
개 판의 모양	사각반, 원반, 팔각반 등
다리의 모양	호족반(호랑이다리), 구족반(개다리), 묘족반(고양이다리), 풍혈반(風穴盤) 등
용 도	교자상, 다과상, 공고상 등
생산 지방	나주반, 통영반, 해주반, 충주반 등

81)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가구디자인, 2003, p.13

8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가구디자인, 2003, p.13



[그림 72] 83)소반

3-3-8. 전통가옥의 가구에 대한 실습

전통가옥의 평면도 위에 전통가구의 사진을 배치하는 실습을 한다.

실습번호 3-3-3 가구 배치하기

(실습시간 4시간)

[실습 목표]

- (1) 각 공간에 필요한 가구를 이해한다.
- (2) 배치를 함으로써 가구의 이름과 기능을 이해한다.
- (3) 주거 공간에 가구를 배치하는 능력을 기른다.

[준비물]

평면도, 캔트지, T자, 연필, 삼각자, 가구사진, 장식물의 사진, 양면 테이프 또는 풀, 공업용 본드 등의 접착제, 흰색 하드보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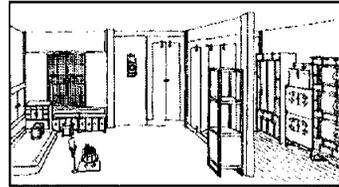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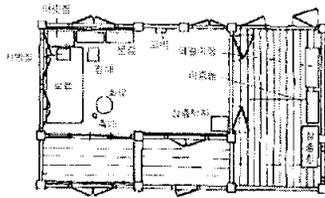
83)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가구디자인, 2003, p.13

[실습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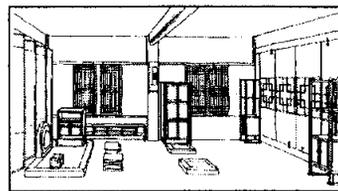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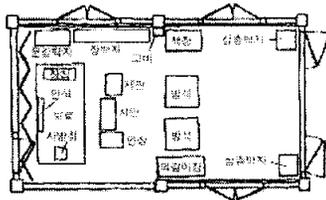
- (1) 평면도를 캔트지 위에 그려 놓는다.
- (2) 각 공간에 필요한 가구를 알아 둔다.
- (3) 옮겨 그린 평면도를 놓고 공간별로 가구 배치를 시도해 본다.
- (4) 2~3종류의 가구 배치 계획안 중에서 하나를 확정한다.
- (5) 최종적으로 선정한 가구 배치 계획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한다.
- (6) 최종안을 검토하여 수정하고 보완한다.

[평가]

- (1) 각 공간에 필요한 가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였는가?
- (2) 동선이 짧고 직선이 되도록 가구를 배치하였는가?



[그림 73] 84) 가구배치 완성 예시 작품(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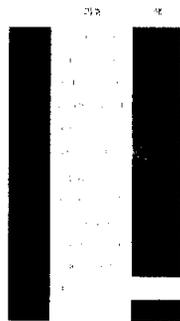
[그림 73-1] 85) 가구배치 완성 예시 작품(사랑방)

84) <http://da2003.digital-architecture.or.kr>

85) <http://da2003.digital-architecture.or.kr>

3-3-9. 전통 가옥의 색채에 관한 교육

우리의 전통색채는 태양승배의 자연사상에서 비롯되어 음양오행 사상에 뿌리를 내리면서 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의미와 상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음양오행 사상의 색채 체계에 의하면 동서남북 및 중앙의 오방(五方)이 주된 골격을 이룬다. 즉, 고귀함·밝음·남쪽을 의미하는 적(赤), 나무·하늘·젊음·동쪽을 의미하는 청(靑), 땅·권위·중앙을 의미하는 황(黃), 태양·신성·서쪽을 의미하는 백(白), 신격·죽음·북쪽을 의미하는 흑(黑)의 오방색인 정색(正色)이 있고, 동과 서 사이에 벽색(碧色), 동과 중앙사이에 녹색(綠色), 남과 서 사이에 홍색(紅色), 남과 북 사이에 자색(紫色), 북과 중앙사이에 유황(硫黃)색이 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정색과 다섯 가지 간색의 10가지 색이 우리의 전통 기본색이다. 이러한 전통색채는 궁전과 사찰에서 단청을 비롯한 건물의 내·외부에 고루 적용되었다. 그러나 일반 주택에는 색채 사용이 금지되었으므로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이 주택의 색채가 되었다. 따라서, 소나무의 열은 나무색과 무채색 계통이 주조색이었으며, 위에 열거한 전통 색채는 주로 실내 소품에 나타난다.



[그림 74] 86 전통색채

3-3-10. 전통가옥의 색채에 대한 실습

전통색채를 알고 전통색채를 이용하여 전통가옥의 평면도, 입면도를 참고하여 색채계획 실습을 한다.

실습번호 3-3-4 전통색채 계획하기

(실습시간 4시간)

[실습 목표]

- (1) 전통색채의 특성을 이해한다.
- (2) 전통색을 이용하여 실내 분위기를 표현함으로써 색채를 선택하고 조화하는 능력을 기른다.

[준비물]

전통가옥의 입면도, 캔트지, 색지, 색연필, 파스텔, 마카, 칼, 가위, 제도, 연필, T자, 삼각자, 양면테이프 또는 풀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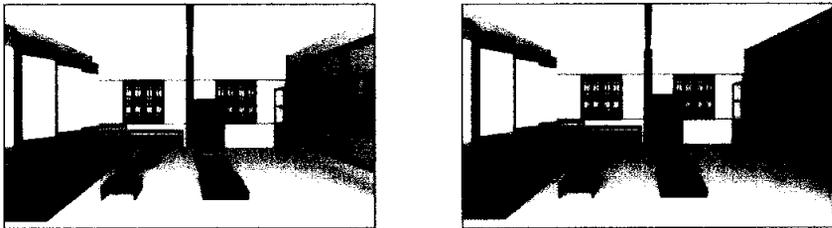
- (1) 원하는 색지나 색연필 등의 재료가 없을 시에는 잡지에서 좋은 색을 오려 두었다가 사용해도 좋다.
- (2) 각 부분에 무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3) 경계 부분에 테두리선을 두르지 않도록 한다. 모든 테두리선은 보이지 않게 한다.

86)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가구디자인, 2003, p.175

- (1) 전통가옥의 입면도를 T자와 삼각자를 이용하여 캔트지 위에 원하는 크기에 맞추어 흐리게 옮겨 그린다.
- (2) 원하는 실내의 분위기를 설정한다.
- (3) 설정한 분위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색을 선정한다.
- (4) 선택한 색을 서로 조화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선정한다.
- (5) 그려 놓은 실내의 입면도에 선정된 색을 넣는다.

[평가]

- (1) 선정된 색이 전통색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 (2) 선정된 색이 원하는 실내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 (3) 결과물이 빈틈없이 깔끔하게 처리되었는가?



[그림 75] 색채계획 완성 예시 작품(안방, 사랑방)

3-4. 교과서 적용

조선시대 전통가옥의 교과내용을 교과서에 적용하여 보았다. 다음 [그림 86]과 같다.

4)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가구디자인, 2003, p.175




이러한 전통 마을의 모습은 조선시대 말엽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을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을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통 마을의 모습은 조선시대 말엽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을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을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 원시 시대의 인간 생활에서는 (원시적인 형태의 주택이나 마을이 형성된 것은 공작의 문명이었다. 이때 처음 주택은 공동체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측할 만한 실마리는 유적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건축 기술과 물의 배분, 토지의 분배에 있다.)

원시 시대의 문명이나 도시의 경우 공동체로서의 성격과 고대 국가에 의해 도시와 군주국립의 성격이 부여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건축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1. 원시 시대에 따른 분류






2. 신시대에 따른 주거형태

● **상류주택**

이 시기의 주택은 예전과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을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을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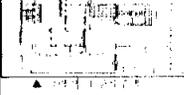
이러한 전통 마을의 모습은 조선시대 말엽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을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을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서민주택**

이 시기의 주택은 예전과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을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을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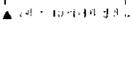
이러한 전통 마을의 모습은 조선시대 말엽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을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을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상류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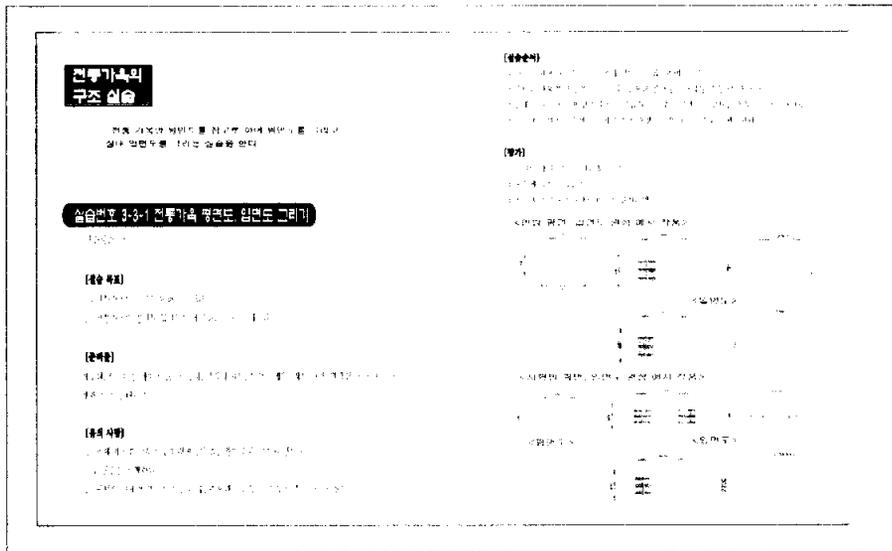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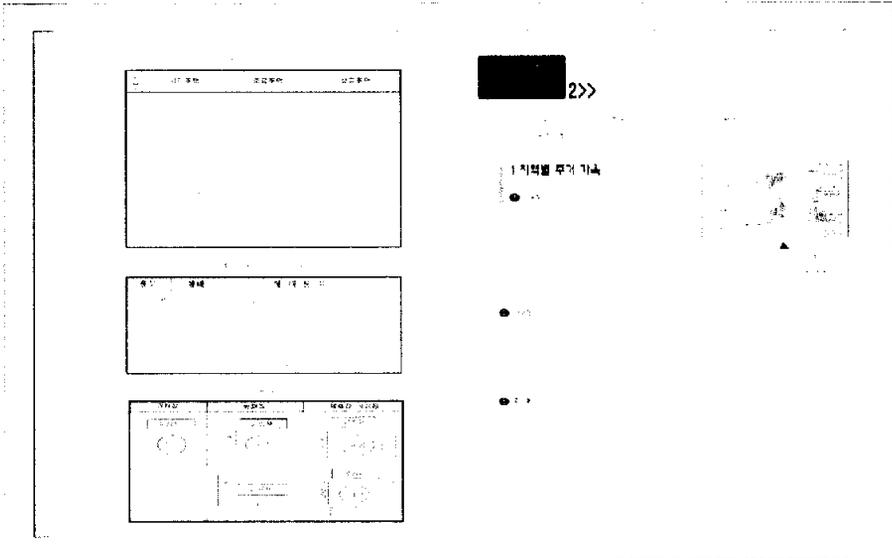



● **서민주택**



[그림 76] 교과서 적용안 예시



[그림 76-1] 교과서 적용안 예시

Ⅲ. 결론 및 향후 과제

오늘날 일상 생활용품에서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외래 문물에 대한 분별없는 답습과 모방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훌륭한 전통이 낡은 것, 진부한 것으로 오인되어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국의 문화적 유산을 통해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중요하다. 다시 말해 잊어버린 전통을 오늘날의 감각으로 전환시켜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디자이너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실내디자인에서 전통 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본 연구는 실내디자인 교과서 내의 전통 교육에 관한 현황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내디자인 전통 교육 중에서도 조선시대의 전통 가옥 실내디자인 교육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의 전통가옥 실내디자인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올바르게 지도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의 전통가옥 실내디자인 교과 내용안을 통해 실내디자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가옥에 많은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을 증진한다. 전통가옥 실내디자인 교과 내용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서 좀 더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전통가옥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둘째, 전통적인 주택과 나아가 현대 주택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분석력을 길러 줄 수 있으며,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반영하고 한국의 전통가옥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현명한 방향 제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통합교과운영을 통하여 학습의 효율성 및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도모한다. 기존의 이론 중심, 설명식 수업에서 탈피하여 조선시대 전통가옥 실내디자인 교과내용안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교사는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 실습단원들을 연계함으로써 이해력 향상 및 실습능력 향상을 동시에 꾀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과 내용안과 현 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방법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발한 전통가옥 실내디자인 교육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디자인에서 서구식의 주거 디자인만을 지향하지 말고 우리 전통가옥 디자인을 잘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우리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양성되기를 기대한다.

[표 27] 교육방향 제시

1. 전통가옥에 많은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 증진
2. 판단력, 분석력 →현명한 방향 제시
3. 통합교과→학습의 효율성 및 흥미유발 도모

창의적이고 우리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참고 문헌

<단행본>

- 고등학교 실내디자인, 교육인적자원부, 2003.
- 고등학교 가구디자인, 교육인적자원부, 2003.
- 한옥의 향기, 신영훈, 대원사, 2000.
- 한국의 문과 창호, 주남철, 대원사, 2001.
- 한국건축사론, 윤장섭, 당, 1994.
- 한국건축사, 건축사, 공간출판사, 1997.
- 한국건축사, 주남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우리 한옥, 신영훈, 현암사, 2000.

<논문>

- 실업계고등학교 실내디자인과(科)의 교육환경 실태에 관한 연구, 권현지,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통합 교과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디자인 역사(歷史)수업방안 연구, 조경숙,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자연과 교재 개발, 1993.
- 한국 전통주거양식을 통한 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 김진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한국 전통 주택의 실내색채 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신인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8.
- 전통적 디자인 요소를 이용한 시각디자인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황지영,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참고 URL〉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http://www.kiid.or.kr>
- 강남공업고등학교 <http://gangnam-t.hs.kr>
- 강서공업고등학교 <http://kangseo-th.hs.kr>
- 경주디자인고등학교 <http://www.godesign.hs.kr>
- 부산디자인고등학교 <http://www.design.hs.kr>
- 부평여자공업고등학교 <http://www.bgt.or.kr>
- 송신공업고등학교 <http://www.kss.hs.kr>
-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http://www.usls.hs.kr>
- 인천디자인고등학교 <http://www.schooline.net>
- 한국전통가옥 <http://www.>
- 광주 민속 박물관(광주광역시)<http://www.kwangjufolk.go.kr>
- 국립 대구 박물관(대구광역시)<http://www.tgmuseum.org>
- 국립 민속 박물관(서울특별시)<http://www.nfm.go.kr>
- 미리별 민속 박물관(경상남도 밀양)<http://www.miryang.go.kr>
- 선교장 민속 자료 전시관(강원도 강릉)
<http://www.tour.kangnung.ne.kr>
- 온양 민속 박물관(충청남도 온양)
<http://www.onyangmuseum.or.kr>
- 이화 여자 대학교 박물관(서울특별시)
<http://www.museum.ewha.ac.kr>
- 한국 가구 박물관(서울특별시)<http://www.kofum.co.kr>
- 한국 민속촌(경기도 용인) <http://www.koreanfolk.co.kr>

부 록

실업계고등학교

조선시대의 전통가옥 실내디자인 교과안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지 문항

< 교사용 >

아래 문항을 읽어보신 후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 일반적 사항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3. 선생님의 디자인 교육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5년 이하 ②6~10년 ③11~15년
④16~20년 ⑤21년 이상
4. 선생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디자인 ②공예 ③미술 ④건축
⑤기타
5. 선생님의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은 무엇입니까?
①디자인·공예 ②미술 ③디자인
④공예 ⑤건축 ⑥기타

■ 전통 교육 관련 문항

1. 실내 디자인 교육에서 전통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조금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치 않다.
④ 전혀 필요치 않다.

1-1. 필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1번 문항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 ① 다양한 디자인을 위함이다.
- ② 우리만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가지며, 전수하기 위해서이다.
- ③ 전통을 이용한 실내디자인하기 위함이다.
- ④ 몸에 배여 있는 우리만의 감성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1-2.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① 전통 교육은 배울 필요가 없다.
- ② 전통 문화를 활용한 실내디자인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 ③ 전통 교육이 어렵다.

2. 전통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관심이 많다.
- ② 조금 관심이 있다.
- ③ 별로 관심이 없다.
- ④ 전혀 관심이 없다.

2-1.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2번 문항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 ① 우리 것을 찾자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 ② 신문이나 방송매체에서 강조하기 때문이다.

- ③개인적인 선호도 때문이다.
- ④기타 ()

■ 목적에 관한 문항

1.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가옥 실내디자인 교육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다음 세대에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이다.
 - ②우리의 전통가옥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 ③옛 어른들의 생활을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한국인 형성을 위한 우리의 전통가옥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수업에 관한 문항

1. 실내디자인 교과서에서 실내디자인의 변천사 단원의 범위가 좁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만족한다.
 - ②만족한다.
 - ③부족하다.
 - ④매우 부족하다.
2. 실내 디자인 교과서에서 실내디자인의 변천사 단원의 내용이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적당하다.
- ②적당하다.
- ③보통이다.
- ④부족하다.
- ⑤매우 부족하다.

- 2-1.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내용이 부족하다.
 - ②예시 작품이 부족하다.
 - ③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 ④기타
3. 실내디자인의 변천사 단원의 수업은 주로 어떤 형태로 진행하십니까?
 - ①설명식 수업
 - ②질의 응답형 수업
 - ③이론+다양한 시각 자료의 제시
 - ④이론+실기의 병행
 - ⑤기타 ()

4. 실내디자인의 변천사의 단원을 지도하실 때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 ①흥미를 느껴서 열심히 한다.
 - ②흥미를 느끼지만 어려워한다.
 - ③다른 수업과 별 다를 바 없다.
 - ④학생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5. 실내디자인의 변천사의 단원 지도의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 ① 교과 내용이 어렵다
 - ② 자료가 부족하다

- ③ 학생들의 흥미 부족
- ④ 기타 ()

■ 교과내용안에 관한 문항

1. 만약 실내디자인 교과서(실내디자인 변천사 부분)를 지정한다면, 교과서의 내용, 구성 중 가장 먼저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내용이 부족하다.
 - ②너무 이론위주로 편성 되었다.
 - ③예시 사진이 부족하다.
 - ④내용이 어렵다.
 - ⑤기타
2. 실내디자인 변천사를 실내디자인 교과서에서 독립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①전통 관련 부분을 독립시켜서 좀더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이 좋겠다.
 - ②현행대로 실내디자인교과서에 넣는 것이 좋다.
 - ③모르겠다.
3. 한국의 전통가옥 실내 디자인에 대한 교과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 ②개발되어야 한다.
 - ③개발할 필요가 없다.

- ④ 모르겠다.

- 4.만약, 변천사와 구조, 재료, 가구, 색채의 내용으로 단원을 나누어서 전통 실내디자인 교과안 개발한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 ①훨씬 쉽고 도움이 많이 될것같다.
 - ②쉽고 도움이 될 것 같다.
 - ③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 ④더 어려울 것 같다.
- 5.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교과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①학생들이 흥미를 느껴 수업에 적극적일 같다.
 - ②이론만 수업할 때랑 별 다를 것이 없을 것 같다.
 - ③수업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
 - ④모르겠다.
- 6.교과안 개발을 한다면 꼭 첨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목적에 관련 문항

1. 한국의 전통가옥 실내디자인교육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다음세대에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이다.
- ② 우리의 전통가옥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 ③ 옛 어른들의 생활을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한국인 형성을 위한 우리의 전통가옥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수업에 관한 문항

1. 실내 디자인 교과서에서 실내 디자인의 변천사 단원의 내용이 이해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당하다.
- ② 적당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족하다.
- ⑤ 매우 부족하다.

2. 실내 디자인 교과서에서 실내 디자인의 변천사 단원의 내용이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당하다.
- ② 적당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족하다.
- ⑤ 매우 부족하다.

2-1.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용이 부족하다.
- ② 예시 작품이 부족하다.
- ③ 내용이 어렵다.
- ④ 기타

3. 실내 디자인의 변천사의 단원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 ① 수업시간의 선생님의 설명
- ② 교과서
- ③ 전통가옥의 전문도서
- ④ 인터넷
- ⑤ 기타

4. 실내 디자인의 변천사의 단원 수업 진행시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십니까?

- ① 매우 관심이 있다.
- ② 관심 있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무관심한 편이다.
- ⑤ 전혀 관심이 없다.

5. 어떠한 형식의 수업이 전통가옥 실내디자인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①설명식 수업
- ②질의 응답형 수업
- ③이론+다양한 시각 자료의 제시
- ④이론+실기의 병행수업
- ⑤기타 ()

■ 교재개발에 관한 문항

1. 만약 실내디자인 교과서(실내디자인 변천사 부분)를 시정한다면, 교과서의 내용, 구성 중 가장 먼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내용이 부족하다.
- ②너무 이론위주로 편성이 되었다.
- ③예시 사진이 부족하다.
- ④내용이 어렵다.
- ⑤기타

2. 실내디자인 변천사를 실내디자인 교과서에서 독립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①전통 관련 부분을 독립시켜서 좀더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이 좋겠다.
- ②현행대로 실내디자인교과서에 넣는 것이 좋다.
- ③모르겠다.

3. 한국의 전통가옥 실내 디자인에 대한 교재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 ②개발되어야 한다.
- ③개발할 필요가 없다.
- ④모르겠다.

4. 만약, 변천사와 구조, 재료, 가구, 색채의 내용으로 단원을 나누어서 전통 실내 디자인 교재 개발한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 ①훨씬 쉽고 도움이 많이 될것같다.
- ②쉽고 도움이 될 것 같다.
- ③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 ④더 어려울 것 같다.

5. 교재 개발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교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①흥미를 느껴 수업에적극적일같다.
- ②이론만 수업할때랑 별 다를 것이 없을 것 같다.
- ③수업이 더 어려울 것 같다.
- ④모르겠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